최종보고서	2008-02-02-00

태권도 용어정립 연구

2008. 12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제 출 문

국기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태권도 용어정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2

책임연구원 강 성 철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강성철** (용인대학교)

연구위원 : **정세구** (서울대학교)

이종관 (국　기　원)

박승용 (육군사관학교)

전정우 (경희대학교)

장　권 (한국체육대학교)

임신자 (경희대학교)

김중헌 (용인대학교)

김세중 (한글학회)

김한샘 (국립국어원)

보조연구원 : **이영림** (상지대학교)

최현민 (동국대학교)

박정호 (경희대학교)

연구소장 : **이규석** (국　기　원)

전임연구원 : **최치선** (국　기　원)

목　차

Ⅰ. 용어정립 연구사업 개요 ································· 1

Ⅱ. 문헌고찰 결과 ··· 15

Ⅲ. 전문가 회의 결과 ··· 41

참고자료(회의록, 박해만 관장님 조언) ···························· 79

참고문헌 ··· 92

1. 용어정립 연구사업 개요

1. 목 적

▶ 변화의 속도전을 치루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태권도 역시 현재의 기술과 용어에 한계가 있어 태권도 용어 정립 연구 필요함

- 태권도 용어의 현황 파악
- 태권도 용어의 기준과 통일성 추구
- 태권도 용어의 개정과 정립 기준안 제시

2. 태권도 용어정립의 필요성

- 학문체계 정립 및 기술개발을 위한 근간 마련
- 신기술 발달로 인한 현재 사용 중인 용어의 한계
- 주관적 정의 용어 범람으로 인한 태권도 용어 정립 필요성 대두
-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 확보

연구 내용

▶ 태권도 용어 개발 목록 추출

▶ 태권도 용어 선정의 원칙

- 전문성 : 태권도계에서 고유적 개념을 갖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통용성 : 일상어휘와 구별되는 태권도계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중요성 : 용어의 사용빈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다양성 : 품새, 겨루기, 시범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망라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태권도 용어의 수집 및 분류

- 최근 5년 내에 발간된 태권도 관련 서적, 논문과 일선 현장 사용 용어로부터 구조 체제 고찰
- 각 용어들의 범주화 및 분류 : 전문가 회의
- 태권도 용어 선정 및 수집

▶ 태권도 용어의 언어적 환경 분석

용어의 언어적 환경 즉 용어의 쓰임새를 유형화하는 표준화 작업의 전단계로 서, 다음과 같은 용어들의 쓰임새를 고찰하도록 한다.

- 적절한 우리말 대신 외래어로 표기하고 있는지 여부(예 - 발놀림 vs. 스텝)
- 짧게 호칭 가능한지의 여부(예 - 몸돌려후려차기 vs. 뒤후리기)
- 발차기 용어 의미부여 가능의 여부(예 - 돌개차기, 나래차기 등)
- 순 한글 표기로 인한 국제화의 어려움 여부(예 - 칫다리지르기, 나래차기 등)
- 띄어쓰기 여부(예 - 안팔목 몸통막기 vs. 안팔목몸통막기)

▶ 용어 정립의 방향

- 간결성 :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용어로서의 기능에 충실 한다.
- 평이성 : 쉽고 명확한 용어를 통해 대중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신뢰성 : 원어의 의미와 쓰임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원어에 대한 충실도를 높인다.
- 보편성 : 같은 기술에 대한 용어 쓰임새가 혼란이 없도록 통일성을 높인다.
- 확장성 : 신기술 개발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3. 태권도 용어의 문제점

◉ 혼돈되는 용어가 많다

예) 품새? 품세(品勢)?, 스텝? 발놀림? 딛기?, 바로? 반대?, 스피드 발차기? 빠른 발차기?
거듭차기, 이어차기, 섞어차기, 이어섞어차기, 돌려, 반몸돌려, 온몸돌려

(부재 용어가 들어갈 경우 겹치는 부분이 많다)

예) 발놀림에 차이로 서로 다른 차기기술 처럼
제시되어 있으며, 몸돌려차기> 반몸돌려차기,
온몸돌려차기의 분류로 나뉘어 몸돌려후려차기>
반몸돌려후려차기, 온몸돌려후려차기가 실제 예가
되어야 한다.

◉ 부 재

실제 사용하고 있지만 교본에는 수록되지 않은 발놀림, 나래차기, 엇서기,
돌개차기 등 경기용어와 고공 5단계, 540도 돌려차기 등 시범용어들이
많이 부족하다.

◉ 인체 구분과 명칭 기준의 불분명

인체 구분에서 의학계의 경우 손바닥이 앞쪽을 보는 상태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에 위치(해부학자세)

태권도의 경우 손등이 앞쪽, 엄지손가락이 안쪽 위치, 얼굴, 몸통, 아래

◉ **용어의 기준이 없다.**

▶ 표현의 다양성에 의한 불분명한 기준

어순의 기준점

모양/상태 → 몸 부위 → 방향 예) 비틀어 얼굴 바깥 막기

몸 부위 → 모양/상태 → 방향 예) 얼굴 비틀어 바깥 막기

상징 추구 vs. 기능 예) 산 틀 막기, 멍에 치기, 돌쩌귀: 작은, 큰

아귀손, 제비품 등 - 관용표현, 별칭, 약식, 통합용어

어순에 기준은? 예) 왼앞굽이? 오른뒷굽이?

◉ **분류가 불분명**

▶ 단계별 분류

기본동작/기술 (막기, 차기)의 범주

예) 제비 품 목 치기, 뒤차기, 뒤돌아 후려 차기 응용동작의 범주

▶ 모양/상태 vs. 방향 vs. 기능

몸 돌려차기의 종류 (국기원교본) 반몸 돌려, 몸 돌려, 온몸 돌려 옆차기

뒤차기 vs. 온몸 돌려(뒤돌아) 옆차기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는 방향이 기준

뻗어차기, 밀어차기, 반달차기, 후려차기는 모양, 상태가 기준이다.

▶ 분류의 중복성

얼굴 비틀어 손 날 바깥 막기

▶ 발차기 문제점의 예

● 돌려차기 : 몸통과 얼굴을 구분 지어서 교육시키고 많이 사용 함.

몸통돌려차기, 얼굴 돌려차기.

- 뒤차기→공격뒤차기, 반격뒤차기 : 이러한 분류로 볼 때 공격과 반격으로 나눠 명칭이 달라짐.

  예) 돌려차기- 공격-돌려차기, 반격-받아차기(반달차기,빗차기)

- 후려차기: 뒤후려차기, 앞후려차기 : 앞. 뒤의 기준을 예매함.
- 내려차기: 안내려차기, 바깥내려차기 :교본- 안차기, 바깥차기
- 밀어차기: 앞밀어차기, 옆밀어차기
- 발붙여차기 : 빠른발차기로 많이 사용하며 포괄적인 기술.

  예) 섞어차기, 이어차기 등…

- 나래차기 ,돌개차기 : 현장에서 많이 사용 하는 용어이지만 교본에 빠져 있으나 분류표상 변화기술로 맞추어 본다면 몸돌려차기, 이어차기로 설명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기준이 중복 될 수 있다.

4. 연구 방법

▶ 문헌 고찰과 현장 지도자 녹취

먼저 국내, 국외의 태권도 관련 서적, 학술저널들과 학위논문 등을 수집하고,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요 index와 keyword를 정리한다. 현재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감독, 코치들을 통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정리한다. 수집된 용어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출판된 국기원 태권도 교본과의 비교를 거친다.

▶ 전문가 회의

본 연구의 목적과 성격상 문헌고찰을 거친 자료수집에 이어, 중요하고 타당한 용어선정은 물론 정확한 용어정리와 표준화 작업은 고도로 조직화된 전문가회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문가회의는 다각도 분석법(triangulation)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각도 분석법은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원자료를 이용하여 결론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연구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이다.

▶ 교본에서 제시한 기본 기술에 대해 재조명하고 기준에 따라 정립.

▶ 교본 상 변화기술의 명확한 구분과 현장기술에 대한 기술의 구분까지 생각하여 용어 정립.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면서 교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용어에 대해 모두 수집하고 이를 용어 정립 기준에 의해 기록.

▶ 기술체계의 분류와 겨루기, 시범에 대한 기술 용어의 통일성.

▶ 겨루기의 분류는 광의적으로 경기겨루기와 실전겨루기로 구분

겨루기는 품새 기술의 실전적 응용체계라고 할 수 있다. 품새의 다양한 기술을 실전에 적용시켜 기술의 우열을 평가하고 검증되어진 것이 겨루기 기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각각의 기술영역들은 연계적 필연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겨루기의 분류는 광의적으로 시합겨루기와 실전겨루기로 구분해야한다.

1. 경기겨루기는 올림픽 경기에 채택된, 스포츠 경기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기술체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실전겨루기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경기규정에 의한 기술체계가 아닌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된 형태의 기술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기술 분류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연습과 훈련 또는 수련의 방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연습방법의 하나가 바로 약속겨루기 또는 맞추어 겨루기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경기겨루기이든, 실전겨루기이든 결국은 기술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기술의 체계는 또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기술의 완벽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습방법이 필요하게 되며, 이 연습(수련)방법은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형식에 맞추거나 또는 약속되거나, 독습이든, 대인연습이든 의도된 기술의 목적에 따라 기술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 **명칭 부여의 조건에 대한 안건**

- 상징성 - 범서기, 산 틀 막기, 금강 막기, 돌개 차기, 나래 차기 등
- 기능성 - 쳇다리 지르기, 몸통 (안, 바깥) 막기, 얼굴 지르기, 목 치기 등
- 설명성 - 나란히 서기, 쳐 올려 막기
- 기능 - 막기, 차기 등
- 신체부위 (얼굴 막기 시)

  방어부위 -얼굴(앞, 옆)

  방어 시 사용 부위(바깥/안 팔목, 손 날 (등))
- 방향 - 위, 아래, 옆, 앞, 바깥, 안, 사선 (대각선), 돌려 등
- 모양/상태 - 쳇다리, ‘ㄷ’ 자 지르기 등

▶ 국어학적 접근으로 명칭 부여 방안

- 어떤 자세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방법) + 어느 곳을(목표) + 수식어 + 뭐 할 것(결과행동=목적) : 결국 결과행동어를 중심으로 단어 간에 자연스런 수식이 되게 한다.

(국기원 용어는,'사용부위 + 목표 + 방법 + 결과행동'으로 돼 있음)

- 용어는 띄어쓰기를 한다. 단, 한 단어를 띄어쓸 경우 앞 뒤 단어와 얽혀 혼란이 생긴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단어는 띄우지 않고 붙인다.

(예 : 얼굴옆/옆얼굴, 몸통옆/옆몸통, 바깥팔목/안팔목, 바깥손날, 앞얼굴/얼굴앞, 바깥얼굴/얼굴바깥, 굽힌손목, 한손날/바깥손날, 손날등/등손날, 반몸/온몸 등 : 이 단어들 중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지와 한 단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례를 통해 고민해 봐야 할 것임)

- 하나의 단어 안에 두 동작(자세)이 포함된 경우(예:바로/반대), 이 말이 수식하는 단어 앞에 둔다.(예 : 편주먹 몸통 바로 지르기, 편주먹 얼굴 반대 지르기 등) 또는 '바로'와 '반대'의 뜻 이해가 1차적이지 않으므로 고칠 필요도 있을 것임.

- 목표가 없는 기본단어의 어순은 '목표'를 빼고 위의 순서대로 따른다.
 (예:안팔목 막기)

- 용어는 구령자의 호흡을 고려하여 편한 것으로 한다.

- 용어는 소리로 들었을 때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쉬운 말을 선택한다.

- 용어는 토박이말로 한다.

- 특정 동작에 용어가 여러 개 있으면 이를 최대한 수집한 후 위의 어순에 맞으면서 구령 호흡과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하되, 이에 적합한 것이 없으

면 용어 정립 기준에 따라 새로 다듬는다. 단 미세한 기술 차이가 있어 별도의 용어가 필요하다면 모아두었다가 뒤에 기술위원회와 따로 논의한다.

- 사전을 만들 때는 하나의 행동에 여러 용어가 있는 경우, 이들 용어를 다 올려주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준 용어를 쓰도록 화살표로 표시하여 준다.

- 위원회의 향후 토의 방법은 기존의 용어들 중 몇 개의 유형들을 무작위로 뽑아 하나하나 심의하여 어순과 용어가 어찌 되면 좋은지를 토의한 후 특정 방향이 잡히면 그에 따라 용어를 정리해 보라고 하여 모은 후 어려운 점이 있던 사례를 가지고 재심의 토론하여 '용어 정립 기준'을 수정하거나 추가, 삭제하여 나간다. 향후 방향은 이와 같은 절차로 한다.

5. 연구 절차

▶ 연구계획 수립

연구계획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1차 계획과 2차 계획 등의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한다. 1차 계획은 2008년, 2차 계획은 2009년(예정)으로 계획 수립한다.

▶ 용어 정립 연구 절차

1. 위원회 구성 및 조직 : 먼저 태권도연구소 내에 태권도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태권도용어정립위원회>를 품새, 겨루기, 시범 등의 태권도학자와 국어학회 전문위원 2명, 그리고 3명의 보조연구원으로 구성한다.
2. 용어 수집, 선정 및 심의 : 1차적으로 국기원, 각 태권도협회, 각 대학 태권도학과 등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태권도 관련 서적들을 조사하고, 이 중 5년 내 발간 서적을 수집한다. 또한 일선 현장의 지도자들에게 전화 연락 혹은 면담을 통해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권도 용어를 수집, 정리한다. 용어의 사용 빈도성, 의미성, 중요성, 최신성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걸러내고, 의미의 중복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 현재 명확한 정의를 가지지 않은 용어 등을 선정하고 심의한다.
3. 1차 정립 작업 및 검토 : 수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용어를 정립하고 표준화하고 태권도 교본과 비교, 검토한다.
4. 2차 용어 정립 작업 : 공청회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1차 정립 작업을 수정, 보완한다.
5. 용어 정립 심의 : 세미나를 통해 태권도 원로와 전문가들에게 용어 정립 작업의 결과를 확정한다. 그 후 국어학회와 영어학회의 최종 감수를 받는다.
6. <태권도용어집> 발간 : 최종적으로 <태권도용어집>을 발간한다.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태권도 연구자들은 물론 인접학문 연구자들과의 원활한 연구소통에 기여
- 일선 현장 지도자들과 학문적 용어 간 괴리 감소
- 타 무술에 비해 체계적, 과학적 접근, 학문적 해석 접근의 용이성 증대
- 운동선수, 스포츠참가자,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태권도의 대중화에 기여
- 표준화된 용어를 통해 일선 도장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 등의 공유 시 언어 소통의 원활
- 한글 태권도 용어 표준화를 통해 영문 및 기타 언어 태권도 용어 표준화 도모
- 향후 발간될 <태권도용어집>은 태권도 용어 사용의 표본이 될 것임
- 국기원 교본과 각 단체의 태권도 관련 규정집,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타 체육단체와의 협력 및 의뢰를 통해 교과서 작업에도 표준화된 태권도 용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7. 추진 계획

월 / 연구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용어정립위원회 조직													
문헌 검토													
용어 수집													
용어 검토													
용어 목록 확정													
1차 용어 정립 작업 및 1차 세미나													
인접학문 비교													
2차 정립 작업 (수정 및 보완)													
1차 정립 심의 (인접학문)													
2차 정립 심의 (국어학회, 영어학회 감수)													
정립 작업 확정/ 2차 세미나													
2차 계획	<태권도용어집> 발간 및 수정												
2차 계획	홍보 및 타 단체와의 연계활동												

8. 용어정립위원회

연구참여 구　　분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비고
위원장	성명 : 강성철 소속 : 용인대학교 직위 : 교수	과제 총괄	
위　원	성명 : 정세구 소속 : 서울대학교 직위 : 명예교수	기술용어 자문	
위　원	성명 : 이종관 소속 : 국기원 지도자연수원 직위 : 교육팀장	기술용어 자문	
위　원	성명 : 박승용 소속 : 육군사관학교 직위 : 교수	품새/기본동작	
위　원	성명 : 장　권 소속 : 한국체육대학교 직위 : 교수	시범	
위　원	성명 : 전정우 소속 : 경희대학교 직위 : 교수	경기겨루기	
위　원	성명 : 임신자 소속 : 경희대학교 직위 : 교수	경기겨루기	

위　원	성명 : 김중헌 소속 : 용인대학교 직위 : 교수	품새/기본동작	
위　원	성명 : 김세중 소속 : 한글학회 한말글문화협회 직위 : 기획위원	한글 자문	
위　원	성명 : 김한샘 소속 : 국립국어원 직위 : 학예연구사	한글 자문	
보조연구원	성명 : 이영림 소속 : 상지대학교 직위 : 대학원생	경기겨루기	
보조연구원	성명 : 최현민 소속 : 동국대학교 직위 : 대학원생	품새/기본동작	
보조연구원	성명 : 박정호 소속 : 경희대학교 직위 : 대학원생	시범	
연구소장	성명 : 이규석 소속 : 국기원 연구소 직위 : 연구소장	과제 총괄	
전임연구원	성명 : 최치선 소속 : 국기원 연구소 직위 : 전임연구원	사업 보조 및 운영	

2. 문헌고찰 결과

1. 태권도학의 구성

태권도의 각 구성을 논리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태권도학이 발전할 수 있다. 이에 현재 태권도의 이론 체계와 기술 체계, 그리고 구성 체계에 대한 선행 자료들의 고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체계적인 구성의 분류 하에서만이 올바른 용어 정립이 이뤄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1) 태권도 이론 구성 체계 분류

표 1. 태권도 이론 구성 체계 분류 고찰

태권도교본(국기원, 오성출판사, 2006) 1. 태권도의 역사 2. 태권도의 정신철학 3. 태권도의 과학적 기초 4. 태권도의 지도 5. 경기규칙 및 해설 6. 태권도 선수의 훈련 7. 태권도의 상해예방 태권도지도이론(김대식・김광성, 도서출판 나남, 1987) 1.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 2. 태권도의 이론적 배경 3. 태권도의 체육학적 배경 4. 학교 태권도 5. 체력 트레이닝 6. 태권도와 안전교육 7. 구급법 8. 태권도와 건강 및 영양 9. 지압술 태권도(송후섭・김종오, 전원문화사, 1986) 1. 태권도의 정의 2. 태권도의 역사	태권도(이경명, 형설출판사, 2000) 1. 태권도와 한국 문화 2. 태권도의 기원과 역사 3.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 4. 태권도의 원리 태권도교본(이교윤, 일신서적공사, 1987) 1. 태권도의 정의 2. 태권도의 발생 3. 태권도 수련의 의의 4. 구급법 수련생을 위한 태권도교본(김석련, 오성출판사, 1988) 1. 태권도의 정의 2. 태권도 역사 3. 태권도 정신 4. 스포츠와 건강관리 태권도교범(이광진, 내외출판사, 1984), 태권도교본(대아운동서적편찬회편, 1985) 1. 태권도의 명칭 2. 태권도의 역사 3. 태권도의 정신

현 국기원 교본(2006)은 [표 2]와 같이 「태권도 연구」,「태권도 구성」, 「태권도 과학적 기초」의 세 분야로 크게 나눠 이 안에 태권도의 역사, 정신철학, 과학적 기초, 지도, 경기규칙 및 해설, 선수의 훈련, 태권도의 상해예방 등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하지만 분류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구성 상 중복의 여지가 있어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단점이 있고, 향후 태권도학의 정립에 있어 그 논리적 구성 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표 2. 현 국기원 교본(2006)의 이론 구성 체계

[태권도 연구] 태권도 역사, 태권도 정신철학, 태권도 지도, 태권도 기본, 태권도 경기, 태권도 선수훈련, 태권도 상해 예방과 응급처치
[태권도 구성] 태권도 철학, 태권도 역사, 태권도 과학적 기초, 태권도 지도, 태권도 기본, 태권도 품새, 태권도 겨루기, 태권도 시범, 태권도 경기, 태권도 선수 훈련, 태권도 상해예방/응급처치
[태권도 과학적 기초] 태권도 운동생리학, 태권도 운동역학, 태권도 운동심리학

따라서 태권도학의 기반을 더욱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다질 수 있고, 향후 교본의 수정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태권도 인문·사회과학」,「태권도 자연과학」,「태권도 실무」의 큰 구성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을 구성한 다음의 [표 3] 분류안을 제시한다. 이는 현행 2·4년제 대학교 태권도학과의 교과목 구성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향후 태권도 수련을 위한 교과과정 구성을 위한 연구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표 3. 태권도 이론 구성 분류 체계안

[태권도 인문・사회과학] 개론(태권도 정의・원리・목적), 태권도 사회학, 태권도 역사학, 태권도의 철학(정신), 태권도 교육학
[태권도 자연과학] 태권도 운동생리학, 태권도 운동역학, 태권도 운동심리학, 태권도 측정・평가학, 상해예방/응급처치, 영양과 건강
[태권도 실무] 태권도 경기론, 태권도 지도론(선수 훈련, 도장), 도장 경영론, 태권도 문화산업론, 태권도 외교・정책론

2) 태권도 기술 체계 분류

표 4. 태권도 기술 체계 분류 고찰

태권도교본(국기원, 오성출판사, 2006) 1. 기본동작 2. 품새 3. 겨루기 4. 시범 태권도교본(이교윤, 일신서적공사, 1987) 1. 기본동작 및 자세 2. 단련(호흡법, 단련주, 단련백 등) 3. 품세 4. 호신술 태권도(송후섭・김종오, 전원문화사, 1986) 1. 기본동작 2. 품세 3. 겨루기 4. 단련 5. 호신술	태권도교본(김대식・김광성, 도서출판 나남, 1985) 수련생을 위한 태권도교본(김석련, 오성출판사, 1988) 태권도(이경명, 형설출판사, 2000) 1. 기본동작 2. 품새(세) 3. 겨루기 4. 격파 5. 호신술 태권도교범(이광진, 내외출판사, 1984), 태권도교본(대아운동서적편찬회편, 1985) 1. 태권도의 기초 2. 기본의 응용(뒤쫓아 찌르기, 뒤쫓아 차기, 숨쉬기, 원과 점, 돌려막기, 원형 역찌르기, 수도 막기, 태권도와 리듬) 3. 형(평안 I, II, III, IV, 기타 형) 4. 겨루기 5. 깨어보기(격파) 6. 특수응용(호신술, 특수훈련)

[표 4]의 기술 체계 분류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의 3개 안으로 구성할 수 있다.

- 1안 :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시범] - 국기원 교본
- 2안 :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 이경명 등
- 3안 : [기본동작] [단련] [품새] [호신술] [겨루기] - 이교윤 등

각 안들은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를 공통적으로 포함하지만, 시범과 호신술, 그리고 격파 혹은 단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본동작이 모든 구성들의 바탕이 됨을 고려했을 때, 기본동작을 다른 구성들과 같은 범주에 두는 것은 부모와 자식을 같은 항렬에 나열하는 것과 같은 분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품새와 겨루기는 태권도의 구성 중 확연하게 구분되지만, 호신술과 격

파 등은 각 태권도 전문가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지, 혹은 부수적으로 기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예로 겨루기 역시 품새 수련을 바탕으로 실전에 대비한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새에서 파생됐다는 주장이 있다. 태권도 자체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호신술이기에 따로 호신술의 구성은 별도로 필요치 않다는 주장과, 격파 혹은 단련은 구성으로 나누기보다 체력단련과 같은 보조의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시범 역시 품새, 겨루기, 격파 등을 모두 합한 종합적인 성격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성들과 같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오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차후 이에 대한 분류와 정의를 정리 및 심의하여 기술 구성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여러 주장에 대한 기술 체계 분류안을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제시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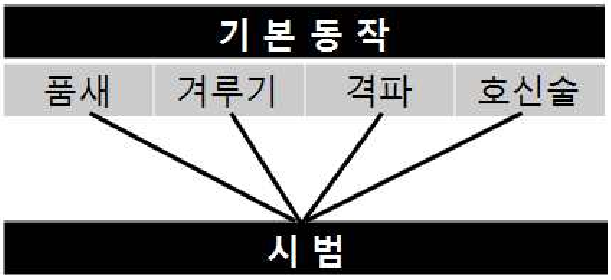


그림 1. 태권도 기술 체계 분류 1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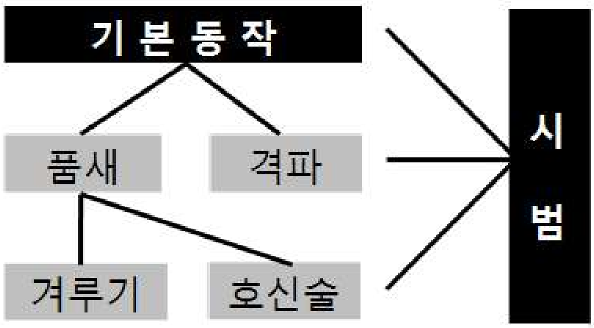


그림 2. 태권도 기술 체계 분류 2안

3) 세부 구성 체계 고찰

(1) 기본동작

국기원 교본의 기본동작은 [표 5]와 같이 서기와 손/발기술 등을 하나의 범주 안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를 [표 6]과 같이 수정함으로써 주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공방 기술의 준비자세로서 서기자세를 따로 분류하고, 또한 공격과 방어를 사용부위에 따라 손과 발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표 5. 국기원 교본 기본동작의 분류

서기	넓혀서기 모아서기	특수품서기
방어	막기 특수막기	잡기
공격	지르기 (특수지르기) 치기 (특수치기) 찌르기	차기 (특수차기) 꺾기 넘기기

표 6. 기본동작 분류안

서기

공방 \ 사용부위	손	발
공격	지르기 (특수지르기) 치기 (특수치기) 찌르기 꺾기 넘기기	차기 (특수차기)
방어	막기 특수막기 잡기	

(2) 품새

품새는 현재 [표 7]과 같이 유급자/유단자 품새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품새를 공인품새로 설정하고, 이 외 새로운 품새를 창작품새[표 8]로 설정하여 앞으로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국기원 교본 품새의 분류

품 새	
유급자 품새	유단자 품새
태극 1 - 8장	고려 - 일여

표 8. 품새 분류안

품 새	
공인품새	창작품새
유급자 품새 유단자 품새	경기용 품새 음악 품새 창작 품새 등

(3) 겨루기

국기원 교본의 겨루기는 현재 [표 9]와 같이 세번겨루기, 한번겨루기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교본의 겨루기 수련법들이 많은 경기 규칙 변화를 통해 현재의 경기겨루기의 발전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본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류안 및 기술 체계를 시급히 정리해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표 9. 국기원 교본 겨루기의 분류

겨 루 기	
세번겨루기	한번겨루기

새로운 분류안에는 [표 10]과 같이 현재 대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기겨루기, 현재 교본에서 기술하고 있는 세번겨루기, 한번겨루기의 약속겨루기, 그리고 60-70년대에 손과 발을 종합적으로 사용했던 실전 혹은 무술겨루기를 제시하였다. 각 겨루기 형태의 기술들을 규칙, 수련방법 등을 보완하여 계속하여 옛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표 10. 겨루기 분류안

겨 루 기		
경기겨루기	약속겨루기 (한번겨루기, 세번겨루기)	(실전)겨루기

경기겨루기는 다시 여러 세부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전정우(2007)는 「태권도 경기지도법」에서 경기겨루기를 [표 11]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11. 전정우(2007)의 경기겨루기 분류안

경 기 겨 루 기			
자세	발놀림	기본기술 (차기 및 지르기)	응용 기본기술

2. 태권도 용어 현황 연구

1. 태권도 용어 정립의 역사

이봉(1999)의 '태권도의 기술 용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태권도 용어 정립의 역사가 잘 기술되어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1961년 각 관이 통합된 이후 1969년에 처음으로 태권도 용어를 한글화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1972년 2차 개정, 1987년 3차 개정을 거쳐 올해(2008년) 연구 사업에 이르게 되었다.

표 12. 태권도 용어 정립의 역사(이봉, 1999)

저 자	연 도	내 용
	1950년대	용어는 주로 한자어를 사용하여 기술
최 홍 희	1955	한국의 전통성을 바탕을 두고 기술 형태에서 발을 사용하는데서 跆, 주먹을 표시하는 拳, 무도의 道를 의미하는 '태권도'라는 명칭을 주장하여 쓰여지기 시작하였음
대한태수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1961	각 관이 통합되어 대한태수도협회 출범 이후 대한태권도협회가 각 기술 용어의 정비와 한글로의 개정 작업을 통해 관마다 상이했던 형(품새)과 용어를 표준화
대한태권도협회	1969	제1차 한글 용어 발표 - 협회제정 통일용어와 제정 형은 간단한 유인물로 만들어져 보급
	1972	제2차 한글 용어 개정 - 1차 제정 시의 어색한 혼합어, 고유어를 찾거나 고유어로 조어하여 개정
국기원	1987년 2월	제3차 용어 개정 '품세'를 '품새'로 개정하는 등, 한글학회의 자문을 얻어 15개의 용어 변경
국기원	1987년 11월	태권도 교본 발행

2. 태권도 용어의 함의 탐색

1989년 1차 한글 용어 제정을 통하여 많은 태권도 용어들이 한글화되었고, 사용부위와 목표부위, 동작 등을 이용해 현재의 기술 용어로 정비되었다. 하지만 태권도 용어 중 다수의 고유어들은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용어의 쓰임과 사용처가 달라져 많은 젊은 세대들이 알기 어려울 정도로 사어화 되거나 고어화 되었다. 따라서 차후 태권도 기술 용어집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용어에 사용된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의 정의를 참고 자료로 삽입하여, 한국의 고유어에 깃들어 있는 전통 문화에 대해 소개하여 하나의 문화 사료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한다는 차원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의 용어들은 고유어를 중심으로 주관적 견해에 의해 선정되었고, 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두산백과사전」을 참고하여 기술하였으며, 각 용어의 설명에 사용되어진 사진은 인터넷 상에서 수집한 것이므로 차후 용어집 작성 시 재촬영하거나 저작권의 문제를 해결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표 13. 기본동작 중 고유어 정의 고찰

용어	사진	정의	비고
메 (메주먹)	 목쇠메	[명사]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나무토막이나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물건 <예> 우리는 집터를 다듬고 주춧돌을 놓으면서 땅을 메로 쳤다.	 메주먹 정면 메주먹 측면
솟음치다 (솟음주먹, 솟음지르기)		[동사][북한어] 1 ‘솟구치다’의 북한어 ※ 용솟음 [湧--] [명사] 1 물 따위가 세찬 기세로 위로 나옴. 2 힘이나 기세 따위가 세차게 북받쳐 오르거나 급히 솟아오름. 또는 그런 기세. ≒곤불(滾沸). 3 <민속>농악 상모놀이 동작의 하나. 부포를 꼿꼿이 세우고 사뿐사뿐 뛰어 깃털이 아래위로 펄럭거리게 한다.	북한어 여부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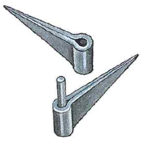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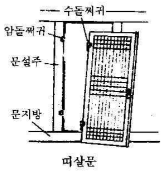
용어	사진	정의	비고
모둠 **(모둠손끝)**		[명사] 1. <교육>초, 중등학교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학생들을 대여섯 명 내외로 묶은 모임. 2. [북한어]한데 모이어 합치는 곳.	북한어 여부 확인 필요
곰손	 곰발바닥 곰의 연어 사냥	손가락의 두 번째, 세 번째 관절을 오므려 곰의 발바닥 모양처럼 쥐는 손의 형태. 손바닥과 손가락의 셋째마디를 사용하여 곰이 연어를 사냥하듯이 안으로 치는 동작을 행한다.	 곰손 ※ 이후 동작 사진 생략
아귀손	 국궁은 화살을 엄지로 당긴다 양궁은 화살을 검지와 중지로 당긴다	[명사] 빈 활을 힘껏 당겼다 놓았다 하는 일. 밖에 나가지 못할 때에 활 쏘는 연습으로 한다. ※ **손아귀** [명사] 1 엄지손가락과 다른 네 손가락과의 사이.2 손으로 쥐는 힘.3 세력이 미치는 범위. ※ **아귀** 1 사물의 갈라진 부분. 2 두루마기나 속곳의 옆을 터 놓은 구멍. 3 씨앗이나 줄기에 싹이 트는 곳. [북한어] '손아귀'의 북한어 ※ **아금손** [명사]<운동> 1. 태껸에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반달꼴을 이룬 손 모양. 2. **태권도에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손가락은 붙인 모양.**	의문 : 어떤 모양을 보고 만들었는지? 활모양? 활시위를 당기는 손모양? 여기서의 손은 手의 의미가 아니고 세 음절 전체가 하나의 순수 한글 명사로 사료됨 의문 : 명칭 제정 시 아귀라고도 불렀으므로 그냥 손아귀의 의미로 사용됐던 것은 아닌지?

용어	사진	정의	비고
칼재비	 칼	칼을 씌운 형태로 아귀손목치기 [명사]<운동>태껸에서, 엄지와 검지를 벌려 상대의 목을 쳐 내는 손 기술의 하나. ※ 칼 [명사] 죄수의 목에 채우는 형구(刑具). 마른 나무널판으로 만든 형틀로 죄수의 목에 씌워 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 ※ 재비1 [명사]<음악>(일부 명사 뒤에 붙어) 국악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기능자를 이르는 말. [명사]은어로, ‘소매치기’를 이르는 말. [명사][방언]‘마상이’의 방언(함북).	의문 : 칼재비와 낙턱의 의미는? 의문 : 낙턱의 연원은?
팔굽 **(팔꿈치)**		팔꿈치 [명사]팔의 위아래 마디가 붙은 관절의 바깥쪽. ※ 팔굽 [명사] 1 **‘팔꿈치’의 잘못**. 2 [북한어]‘팔꿈치’의 북한어. ※ 굽 [명사] 1 말, 소, 양 따위 짐승의 발 끝에 있는 두껍고 단단한 발톱. 2 그릇 따위의 밑바닥에 붙은 나지막한 받침. 3 **나막신 바닥에 달린 두 개의 발**. 4 구두 밑바닥의 뒤축에 붙은 발.	북한어 여부 확인 필요
팔목		[명사]팔과 손을 잇는 부분. <예>팔목을 잡다. 팔목이 부러지다. ※ 손목 [명사]손과 팔이 잇닿은 부분.	
발뒤축 **앞축, 뒤축**		[명사] 발 뒤쪽의 둥그런 부분 가운데 맨 뒤쪽의 두둑하게 나온 부분. ≒ 뒤축 ※ 축12(築) [명사] 1. **돌이나 흙으로 단이 지도록 높이 쌓은 평평한 터**. 2. [북한어]구두의 뒷부분에 높게 댄 것. ※ 축10(軸) [명사] 1. <기계>=굴대1. 2. 둘둘 말도록 되어 있는 물건의 가운데 끼는 막대. 3. **활동이나 회전의 중심**. 4. =두루마리. 5. <공업>회전 운동이나 직선 왕복 운동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둥근 막대 모양의 기계 부품. ≒샤프트. 6. <물리>물체가 회전 운동을 할 때에 그 물체의 중심에서 회전 운동의 중심이 된다고 가정하는 직선. ≒샤프트.	회전 시에는 축10(軸)의 의미가 쓰이지만, 발차기 시 공격부위의 축은 축12(築)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함. 앞축의 명사는 없으나 뒤축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사료됨.

용어	사진	정의	비고
안쫑 **(안쫑서기)**		※ 안쫑 [명사][북한어]마음속으로 종잡는 짐작이나 대중. ※ 안쫑다리 [명사]**'안짱다리'의 잘못.** ※ 안짱다리 [명사]두 발끝이 안쪽으로 휜 다리. 또는 두 발끝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걷는 사람	
주춤서기		[명사] <운동·오락> 태권도에서, 양발을 한 발 간격으로 벌리고 가슴을 펴고 몸을 반듯이 둔 상태에서 무릎 관절을 약간 퉁겨 앉는 자세 ※ 주춤 [부사]망설이거나 가볍게 놀라서 갑자기 멈칫하거나 몸을 움츠리는 모양	
모 **(모서기)**		[명사] 1 물건의 거죽으로 쑥 나온 귀퉁이. 2 공간의 구석이나 모퉁이. 3 선과 선의 끝이 만난 곳. 4 면과 면이 만난 부분. 5 사람이나 사물의 면면이나 측면. 6 까다롭거나 표가 나는 성격. **7 몸의 비껴 튼 옆면. [관용구] 모(를) 꺾다**	
오금서기		[명사] 1 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 ≒곡추(曲瞅)·다리오금·뒷무릎	
범서기	 민화 – 까치와 호랑이 고양이 자세	[명사]<운동·오락> 태권도에서, 앞서기 자세에서 두 무릎을 다소 구부리고 앞발만 뒤꿈치를 약간 들고 있는 자세	가라데 – 묘정립(고양이서기)과의 연관성

용어	사진	정의	비고
학다리서기	 학의 외다리로 서 있는 자세	학의 외다리로 서 있는 모양새를 본 따 만들어 진 동작	
산틀막기		[명사]<운동·오락> 태권도에서, 좌우에서 동시에 공격해 올 때 막는 손 기술. 주먹을 들어 올려 한쪽 어깨 위로 가져갔다가 수평으로 막는다. ※ 틀 [명사] 1 골이나 판처럼 물건을 만드는 데 본이 되는 물건. 2 어떤 물건의 테두리나 얼개가 되는 물건. 3 일정한 격식이나 형식. **4 사람 몸이 외적으로 갖추고 있는 생김새나 균형**. 5 간단한 구조로 된 기계나 장치. 6 =재봉틀. ※ 틀 : 태권도) [품세, 기본동작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전술적 의의를 가지는 동작]을 이르는 북한말	
황소막기	 황소의 머리	한국의 황소의 뿔 생김새를 본 따 만들어 진 동작	

용어	사진	정의	비고
금강 (금강막기, 금강지르기)	 석굴암의 금강역사상	금강역사의 동작을 본 따 만들어 진 동작 ※ 금강역사 : 금강저(金剛杵)를 손에 들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 금강신(金剛神)·집금강(執金剛)·금강야차(金剛夜叉)라고도 한다. 사찰 문의 좌우에 서서 수문신장(守門神將)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주 석굴암 전면의 금강역사는 손에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멍에 (멍에치기, 멍에빼기)	 멍에 멍에를 찬 황소의 모습	양 팔굽을 양 쪽 목표를 향해 치거나 빼는 동작 [명사] 마소의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 모양의 막대	멍에를 제거하는데 쓰이는 동작인지, 착용 시의 동작인지 실제로 확인할 필요 있음
치 (치지르기)		[접사]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쳇다리 (쳇다리지르기)	 쳇다리 쳇다리	[명사]체로 밭거나 거를 때에, 그릇 따위에 걸쳐 그 위에 체를 올려놓는 데 쓰는 기구. 'Y' 자 모양이나 사다리꼴로 된 나무를 쓴다.	

용어	사진	정의	비고
제비품 (제비품턱치기, 제비품목치기)		제비품 : 몸을 비틀어 제비의 몸과 꼬리 사이가 잘록한 것 같이 허리를 잘록하게 보이도록 하며 두 손을 벌려 날개와 같은 형태를 만들었을 때를 말함(교본) ※ 품3 [명사][의존명사] 행동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 ≒품새.	
반달 (반달차기)	 반달	[명사] 1. 반원형의 달 반달의 형태로 발차기의 궤적이 그려지는 차기	
후려차기		<운동>태권도에서, 몸의 좌우를 발뒤꿈치나 발바닥으로 후리며 돌려 차는 기술. ※ 후려치다 [동사] 1. 「…을」 **주먹이나 채찍 따위를 휘둘러 힘껏 갈기다.** <예> 따귀를 후려치다 2. [북한어]눈이나 비 따위가 내리거나 날아와 세게 부딪치다. ※ 후리다1 [동사] 1. 휘몰아 채거나 쫓다. 2. 휘둘러서 깎거나 베다. 3. **휘둘러서 때리거나 치다.**	
두발당성 (두발당성차기)		[명사]두 발로 차는 발길질. ≒두발당사니. <예> 두발당성으로 발을 한번 후딱 하면 한꺼번에 두 놈이면 두 놈, 세 놈이면 세 놈이….≪송기숙, 녹두 장군≫	
돌쩌귀 (큰돌쩌귀, 작은돌쩌귀)	 암돌쩌귀와 수돌쩌귀	[명사] 1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두 개의 쇠붙이. 암짝은 문설주에, 수짝은 문짝에 박아 맞추어 꽂는다. 경첩	 한국 전통문에 사용되는 돌쩌귀

3. 경기겨루기 및 차기 용어 고찰(곽택용, 2007)

태권도 용어 정립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곳은 실제 각 기술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기겨루기, 시범 현장이다. 그 중 경기겨루기는 발놀림(스텝)과 새로운 차기 기술의 발전으로 태권도의 세계 보급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 온 반면에, 한 기술을 지칭하는 해당 용어는 각 사용자들의 주관적 정의로 인해 범람하였고, 심지어 같은 기술에 대해서도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본 장에서는 경기겨루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차기 용어 등에 대해서 곽택용(2007)의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본다.

[표 14]는 현장에서 사용되어온 발차기 용어를 한 기술에 대해 어떻게 다른 쓰임으로도 쓰이고 있는지 조사했으며, [표 15]는 교본 발간의 역사와 연구자에 따라 공식 차기 용어를 어떻게 변화시켜 사용하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또 [표 16]과 [표 17]은 각각 발놀림(스텝)의 다양한 명칭과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놀림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다.

표 14. 현장에서 사용되어온 발차기 용어

차 기	사 용 례
앞차기	
돌려차기	앞돌려차기,
옆차기	옆뻗어차기
뒤차기	뒷차기, 뒤돌아옆차기, 몸돌아옆차기, 몸돌려차기
뒤후려차기	뒤후리기, 회축, 몸돌아차기 뒤돌려차기, 몸돌려차기
앞후려차기	앞후리기, 앞발후리기
옆후려차기	옆후리기, 뒤발후리기
들어찍기	곡괭이, 찍기, 찍어차기, 내려찍기, 내려차기
밀어차기	밀기, 들어밀기, 끌어밀기
돌개차기	턴(차기), 날아방, 몸돌아차기
나래차기	따블(차기),
밑받아차기	빗차기, 밑뻥(차기), 밑발(차기), 밑차기,
빠른발차기	붙여차기, 발붙여차기, 빠른발(차기)
빠른발찍기	런너(찍기), 발붙여찍기,
앞주먹치기	
뒤주먹치기	

표 15. 구교본/협회 및 국기원/경기 관련 논문 차기 공식 용어(곽택용, 2007)

황기 (1958)	박철희 (1958)	최홍희 (1966)	이원국 (1969)	계간태권도 (1971)	계간태권도 (1972)	태권도교본 (품새편) (1975) 이종우	태권도교본 (국기원) (1987)	김형묵 (1977)	이동수 (1977)	유영권 (1980)	이승국 (1983)	이승국 (1984)	임신자 (1993)	김세혁 (1993)
앞차기	앞차기	앞차기	앞차기	앞차기	앞차기	앞차기	앞차기	앞차기	앞차기	앞차기	앞차기		앞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앞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옆뻗어차기	옆차기	옆차기	옆차기	옆차기	옆차기	옆차기	옆차기	옆차기	옆차기		옆차기			
뒤차기		뒤로차기		뒤차기			뒤차기	뒷차기		뒤차기	뒷차기	뒤차기	뒷차기	뒤차기
				몸돌려차기	몸돌려차기	몸돌려차기	몸돌려차기	뒤후리기	몸돌려차기	뒤돌려차기	뒤후리기	뒤후리기	뒤후리기	후려차기
앞올리기		앞올리기		비틀어차기	비틀어차기	비틀어차기	비틀어차기	곡괭이	찍어차기	들어찍기	들어찍기	들어찍기	들어찍기	찍어차기
옆올리기		옆올리기		반달차기	반달차기	반달차기	반달차기	밀어차기		들어밀기	밀어차기	밀어차기	밀어차기	밀어차기
							내려차기	빗차기		빗차기	밑차기			
빗차기							밀어차기						몸돌아차기 (돌개차기)	
발로밀기		차밀기					후려차기						날아차기 (나래차기)	
*옆차기														
뛰어차기 두발차기 쌍발차기 거푸차기 무릎치기		이단옆차기 이단돌려차기 이단높이차기 연속차기 무릅차기	이단앞차기 이단옆차기	연속차기 뛰며앞차기 뛰며옆차기 뛰며 돌려차기) 두발당상 뛰며 두발옆차기 무릎치기	굴러차기 뛰어앞차기 뛰어옆차기 뛰어돌려차기 두발당상 모듬발앞차기 모듬발옆차기 뛰어몸돌며차 기	굴러차기 뛰어앞차기 뛰어옆차기 뛰어돌려차기 두발당상 뛰어모둠발차 기 뛰어몸돌려차 기	굴러차기 뛰어차기 두발당상 가위차기 모둠발차기 거듭차기 섞어차기 이어차기 무릅치기	받아차기	앞주먹, 뒤주먹			앞후리기 앞밀어차기 옆밀어차기 앞주먹, 뒤주먹 받아돌려차기 받아뒤차기	앞밀어차기 옆밀어차기 뒤지르기 앞지르기 밖으로찍기 안으로찍기	먼저공격 나중공격

*옆차기(황기): 앞차기를 측면으로 차는 차기를 말함

표 16. 주요 연구논문 및 겨루기 교본에 나타나는 스텝 용어

이승국(1983)	이승국(1984)	정락희외(1985)	김세혁(1993)	임신자(1993)	정국현(1994)	최영렬외(1998)
스텝	스텝	스텝	발놀림	스텝	짓기	스텝(발놀림)
발바꿔	발바꿔스텝	발바꿔스텝	발바꿔 품바꿔	제자리 품바꾸기		자세바꿔주는 스텝
	전진스텝	전진스텝	같이 앞걸음, 끌어걸음	발붙여. 끌어, 빠른발	나가짓기(두발 동시 이동동작), 끌어짓기	두발 동시에 나가는 스텝, 발붙여 나가는 스텝
	전진1보스텝	1보전진스텝	앞걸음	1보 전진	나가짓기 (앞발축 이동동작)	앞발이 축이 되어 한걸음나가는 스텝
빠른발스텝	빠른발스텝	빠른발스텝	빠른발걸음 *빼앞걸음	2보전진		발바꿔 나가는 스텝, 빠른걸음으로 나가는 스텝
	좌우측 발주고 스텝	좌우 뒷발 주고스텝				
	컷스텝		뒷발들어걸음, 앞발들어 걸음			앞발을 들고 나가는 스텝, 뒷발을 들고 나가는 스텝
	180도 돌아스텝	180도 돌아스텝	반돌아걸음 *온돌아걸음	180도 회전	뒤돌아짓기	뒤돌아나가는 스텝
	후진스텝	후진스텝	같이 뒷걸음	뒷발빼기	물러짓기 (두발 동시 이동동작)	두발 동시에 뒤로 빠지는 스텝, 뒷발들고 뒤로 빠지는 스텝
	후진1보스텝	1보후진스텝	뒷걸음	앞발빼기	물러짓기 (뒤발축 이동동작)	뒷발이 축이되어 한걸음 뒤로 빠지는 스텝
			몸틀어			
				교차하며 빼기		
끌어스텝 뛰어스텝 후진스텝	찬발뒤로빼서 스텝					
	뒤로빠지는스텝					
	좌우로 빠지는 스텝		옆걸음	좌우 옆으로 빠지면서	비켜짓기	옆으로 움직여주는 스텝 (사이드 스텝)
		끌어, 뛰어 따라가며, 빠지면서	반뒤돌아			

표 17. 현재 경기장에서 사용형태 1.스텝 2.발놀림 3.걸음 4.짓기 5.딛기 6.보법 7.기타용어

<table>
<tr><th>스텝</th><th>세부종류</th><th>기술명칭 예)</th><th colspan="3">경기장 스텝기술용어 예)</th><th>기술사용
상대방공격유도</th><th>동작설명</th><th>응용동작</th></tr>
<tr><td rowspan="15">전진스텝</td><td rowspan="12">한모션
스텝</td><td rowspan="2">앞모션스텝</td><td colspan="2">앞모션스텝( )</td><td>제자리모션스텝( )</td><td rowspan="2">겨루기시 타이밍, 기회포착 (공격과 받아차는 동작)</td><td rowspan="2">앞발을굴러주어 상대방의 허점을 노출시키게 하는 동작</td><td rowspan="2">모션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사정거리 혼동을 유발하여 반격</td></tr>
<tr><td colspan="2">제자리에서움직이는스텝( )</td><td></td></tr>
<tr><td rowspan="2">앞발끌어
이동스텝</td><td colspan="2">끌어짓기( )</td><td>앞발끌어이동스텝( )</td><td rowspan="2">겨루기 공격시 사정거리를 위해 접근하는 방법(공,수,반격)</td><td rowspan="2">앞발이 끌어움직이는 만큼 뒷발도 끌어 움직이는 형태</td><td rowspan="2">주로 공격적인 형태또는 앞으로 움직인후 받아차는 동작</td></tr>
<tr><td colspan="2">앞발들고나가는스텝( )</td><td>전진스텝( )</td></tr>
<tr><td rowspan="2">한발나가는스텝</td><td>한발나가는스텝 ( )</td><td>원스텝( )</td><td>한발스텝( )</td><td rowspan="2">한걸음 나가는 동작 나간후 공수전환 및 반격</td><td rowspan="2">뒷발이 한걸음 나가는 동작</td><td rowspan="2">상대방의 동작에 따라 공격 및 방어 반격이 이루어짐</td></tr>
<tr><td>한걸음나가짓기 ( )</td><td>1보전진스텝( )</td><td>뒷발나가는스텝( )</td></tr>
<tr><td rowspan="2">발붙여스텝</td><td colspan="2">두발동시에나가는스텝( )</td><td>발붙여스텝( )</td><td rowspan="2">상대방과의 거리 사정거리에 맞게나가는 동작(공,수,반격)</td><td rowspan="2">두발이 동시에 앞으로 나가는 발동작</td><td rowspan="2">동작을 취한후 공격적 발차기 이어차기 (빠른발 연결)</td></tr>
<tr><td colspan="2">빠른발스텝( )</td><td></td></tr>
<tr><td rowspan="2">폼바꿔스텝</td><td colspan="2">폼바꿔스텝( )</td><td>스위치스텝( )</td><td rowspan="2">폼을 반대방향으로 전환(공,수,반격)</td><td rowspan="2">그 자리에서 발과폼을 반대로 전환 하여 바꿔준다.</td><td rowspan="2">폼바꿔서 공격 및 받아차기 연결</td></tr>
<tr><td colspan="2">발바꿔스텝( )</td><td></td></tr>
<tr><td>뒤돌아스텝</td><td colspan="2">뒤돌아스텝( )</td><td>뒤돌아나가는스텝( )</td><td>뒤로도는 형태 공격적인 발차기 연결</td><td>뒤로 180도 돌아서는 자세</td><td>뒤로 돌아자세잡은후 (공,수,반격)</td></tr>
<tr><td rowspan="3">두모션
스텝</td><td rowspan="3">투스텝</td><td colspan="2">투스텝( )</td><td>빠른걸음스텝( )</td><td rowspan="3">뒤로빠지는 상대 따라가는 스텝후 공격 하는 동작(공,수,반격)</td><td rowspan="3">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는 빠른걸음으로 달려가서 (뒤로빠지는 상대)</td><td rowspan="3">빠지는 선수를 순간적으로 사정거리 유지후 공격발차기</td></tr>
<tr><td colspan="2">빠른걸음나가는스텝( )</td><td>두걸음스텝( )</td></tr>
<tr><td colspan="2">발바꿔나가는스텝( )</td><td></td></tr>
</table>

4. 태권도 시범 용어 고찰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대학 태권도학과 시범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범 기술 용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아래([표 18], [표 19])의 국기원 시범단 태권도 기술용어 중 현재 귀 대학의 태권도 시범단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와 "㉠기술은 같으나 기술용어의 명칭만 다른 것, ㉡기술은 유사(50%이상 일치)하나 명칭이 다른 것, ㉢아래에서는 제시되었으나 소속 대학에서는 쓰이지 않는 기술이거나 처음 접하는 용어" 등을 찾아 (번호와 함께) 기술하여 주십시오."

표 18. 국기원 시범단 프로그램 구성 1

1. 명상	15. 천권 품새, 위력 발 격파
2. 기본 동작	16. 고려 품새
3. 기본 격파	17. 장애물 딛고 앞차기 3방
4. 뛰어 앞차기, 뛰어 뒤차기, 뛰어 뒤후리기	18. 낙법, 눈 가리고 사과차기
5. 앞차기 3방, 뛰어 540도 돌개차기, 뛰어 옆차기	19. 1 : 3 호신 겨루기
6. 부채 호신 겨루기	20. 가위차기 4방, 돌려차기 4방, 이어차기 4방
7. 돌개차고 뒤돌아 옆차기, 3번 뒤후리고 돌개차기, 2번 나래차고 뒤후리기	21. 1 : 1 한번 호신 겨루기
8. 장애물 딛고 돌려차기, 돌려차기 3방, 옆차기 3방	22. 사과 던져 몸돌아 차기 3조, 제자리 공중 몸돌아 사과차기 2조
9. 음악 품새	23. 가위차기 5방, 돌려차기 5방, 9회 뒤후리고 돌개차기
10. 위력 손 격파(3방향)	24. 창작 품새
11. 일렬격파	25. 540도 3단계, 9회 돌개차고 540도 뒤후리기
12. 1 : 2 여성 호신 겨루기	26. 머리 위 사과 돌개차기, 720도 돌개차기, 장애물 딛고 공중 몸돌아 차기
13. 장애물 딛고 뛰어 앞차기, 3명 가슴 딛고 뒤차기, 3명 어깨 딛고 뒤차기	27. 다 방향 움직임 격파
14. 뛰어 양발 앞차기, 제자리 540도 뒤후리기, 눈가리고 돌개차기, 눈가리고 540도 뒤후리기	

표 19. 국기원 시범단 프로그램 구성 2

1. 묵상	23. 옆차기 3단계 격파
2. 연합동작	24. 돌려차기 3단계 격파
3. 장애물넘어이단옆차기	25. 가위차기 5단계 격파
4. 이단 앞차기	26. 호신술
5. 양발 앞차기	27. 공중 돌려차기 1.2.3단계
6. 수직4단계 격파	28. 장애물 딛고 공중회전격파
7. 일렬격파	29. 사과 던져 공중회전 격파
8. 손, 발 위력격파	30. 공중회전 양발 사과격파
9. 장애물 딛고 돌려차기	31. 공중회전 한발 칼끝사과격파
10. 장애물 딛고 턴차기	32. 눈가리고 사과 돌개차기 후 공중회전격파
11. 태권체조	33. 720도 돌개차기 격파
12. 일렬대형 속도격파	34. 540도 뒤후려차기 1.2.3단계 격파
13. 사람넘어 주먹격파 후 낙법	35. 10회 연속 뒤후려차기 격파
14. 멀리 뛰어 낙법	36. 9회 연속 회전 이단앞돌려차고 540도 뒤후려차기 격파
15. 움직임 4방향 격파	
16. 유단자 품새	37. 고단자 품새
17. 등 밟고 역회전 격파	38. 장애물 딛고 공중회전 2단계 앞차기 격파
18. 3명 어깨 밟고 뛰어앞차기 격파	39. 단체 격파(단체뛰어앞차기격파)
19. 타켓 차기	40. 장애물 밟고 앞차기 3단계격파
20. 자유 타켓차기	41. 호신약속겨루기
21. 3:1 겨루기	42. 3명가슴딛고 돌려차기격파
22. 창작품새	

2) 설문조사 결과

주요 6개 대학으로부터 설문의 답안을 받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 대학

번호	국기원	차이	소속 대학
1-3 1-4	기본격파 뛰어 뒤후리기	㉠, ㉡	기본종합격파 뛰어 뒤후려차기

1-5 1-20 1-27 2-9	뛰어540도 뒤후리기 이어차기 4방 다방향움직임격파 장애물 딛고 돌려차기		달려돌개차기 고공 4단계 다방향격파 몸 딛고 돌려차기
-	태권체조	㉢	-

B 대학

번호	국기원	차이	소속 대학
1-5	뛰어 540도 돌개차기	㉠, ㉡	역턴
1-14	뛰어 양발 앞차기		양발고축
1-20	이어차기 4방		고공4단계
1-25	9회 뒤후리고 돌개차기		뒤후리기 10방
1-25	9회 돌개차고 540도 뒤후리기		돌개차기 10방
1-27	다방향 움직임 격파		다방향 격파
2-12	일렬대형 속도격파		일렬격파
2-13	사람넘어 주먹격파 후 낙법	㉢	-
2-14	멀리 뛰어 낙법		-
2-15	움직임 4방향 격파	㉠, ㉡	-
2-19	타켓차기	㉢	미트차기
2-20	자유타켓차기	㉠, ㉡	-
2-29	사과 던져 공중회전 격파		사과던져 공중몸돌아차기
2-30	공중회전 양발 사과격파		공중몸돌아차기 양발
2-38	장애물 딛고 공중회전 2단계 앞차기 격파		장애물 딛고 공중 몸돌아차기 양발

C 대학

번호	국기원	차이	소속 대학
1-5	뛰어 540도 돌개차기	㉠, ㉡	360도 턴차기
1-4	뛰어 뒤후리기		뛰어 뒤후려차기
1-7	돌개차고 뒤돌아옆차기		돌개차고 뒤차기
1-27	다방향 움직임격파		다방향격파
1-22	제자리 공중몸돌아 사과차기		뒤공중몸돌아 앞, 양발 차기
2-1	묵상		명상
2-2	연합동작		기본동작
2-3	장애물넘어이단앞차기		뛰어옆차기
2-4	이단앞차기		뛰어앞차기
2-5	양발앞차기	㉢	뛰어앞차기
2-6	수직4단계 격파	㉠, ㉡	후리기 3방 후 돌개차기
2-12	일렬대형 속도격파	㉢	-
2-13	사람넘어 주먹격파 후 낙법	㉠, ㉡	높이, 낙법 격파

2-14	멀리뛰어 낙법	㉢	-
2-15	움직임 4방향 격파	㉠, ㉡	-
2-16	유단자 품새	㉠, ㉡	품새 명칭사용(고려, 금강, 태백 등)
2-17	등 밟고 역회전 격파	㉠, ㉡	등밟고 뒤공중 몸돌아앞차기
2-19	타켓차기	㉠, ㉡	-
2-20	자유 타켓차기	㉢	-
2-21	3:1 겨루기	㉠, ㉡	1:3 겨루기
2-23	옆차기 3단계 격파	㉢	옆차기 3단계
2-24	돌려차기 3단계 격파	㉠, ㉡	돌려차기 3단계
2-25	가위차기 5단계 격파	㉢	가위차기 5단계
2-26	호신술	㉠, ㉡	호신겨루기
2-27	공중 돌려차기 1, 2, 3단계	㉠, ㉡	-
2-28	장애물 딛고 공중회전격파	㉠, ㉡	장애물 밟고 뒤공중몸돌아앞차기
2-29	사과 던져 공중회전 격파	㉠, ㉡	-
2-30	공중회전 양발 사과격파	㉠, ㉡	뒤공중 몸돌아 양발 앞차기
2-31	공중회전 한발 칼끝사과격파	㉠, ㉡	뒤공중 몸돌아 앞차기
2-32	눈가리고 사과 돌개차기 후 공중회전격파	㉢	-
2-33	720도 돌개차기 격파	㉢	720도 돌개차기
2-34	540도 뒤후려차기 1, 2, 3단계 격파	㉠, ㉡	540도 뒤후려차기 1, 2, 3단계
2-35	10회 연속 뒤후려차기 1, 2, 3 단계	㉢	9회 뒤후려차고 돌개차기 또는 540도 후려차기
2-36	9회 연속 회전 이단앞돌려차고 540도 뒤후려차기	㉠, ㉡	9회 돌개차고 540도 뒤후려차기
2-37	고단자 품새	㉠, ㉡	-
2-38	장애물 딛고 공중회전 2단계 앞차기 격파	㉠, ㉡	-
2-39	단체격파(단체뛰어앞차기격파)	㉠, ㉡	-
2-40	장애물 밟고 앞차기 3단계 격파	㉠, ㉡	장애물 밟고 앞차기 3단계
2-41	호신약속겨루기	㉠, ㉡	-
2-42	3명 가슴 딛고 돌려차기 격파	㉠, ㉡	3명 가슴 딛고 돌려차기

D 대학

번호	국기원	차이	소속 대학
1-2	기본동작	㉠, ㉡	기본연합동작
1-4	뛰어앞차기	㉠, ㉡	높이뛰어이단앞차기
1-5	앞차기 3방, 뛰어 540도 돌개차기, 뛰어옆차기	㉠, ㉡	공중앞차기3단계, 역회전540도돌개차기 이단옆차기

1-7	3번 뒤후리고 돌개차기		수직 4단계격파
1-8	장애물 딛고 돌개차기, 돌려차기 3방, 옆차기 3방		가슴딛고 이단앞돌려차기, 공중돌려차기 3단계, 공중옆차기 4단계
1-11	일렬격파		속도일렬종합격파
1-13	장애물 딛고 뛰어 앞차기		(어깨, 가슴)딛고 뛰어앞차기
1-141	뒤후리기		뒤후려차기
-21	1:1 한번 호신겨루기		1:1 호신 약속겨루기
1-22	사과던져 몸돌아차기 3조, 제자리공중 몸돌아사과차기2조		사과던져 뒤공중몸돌아앞차기
1-23	가위차기 5방, 돌려차기 5방, 9회 뒤후리고 돌개차기		가위차기 5방향격파, 공중돌려차기 5단계
1-25	540도 3단계		540도 3단계 뒤후려차기,
1-26	장애물 딛고 공중 몸돌아 차기		가슴딛고 공중몸돌아차기
1-27	다방향 움직임격파		움직임 다방향격파
2-11	태권체조		태권에어로빅
2-12	일렬대형 속도격파		속도일렬종합격파
2-16	유단자 품새		품새이름
2-17	등 밟고 역회전 격파		등밟고 역회전 뒤공중몸돌아(왼),(오른),(양발)앞차기
2-27	공중 도려차기 1, 2, 3단계		단계별 공중돌려차기 격파

E 대학

번호	국기원	차이	소속 대학
1-4	뛰어앞차기	㉠, ㉡	높이 뛰어 이단앞차기
1-5	뛰어 540도 돌개차기		역턴
1-7	3번 뒤후리고 돌개차기		여성 수직 뒤후리기 격파
1-11	일렬격파		일렬속도격파
1-17	장애물 딛고 앞차기 3방		등 밟고 앞차기 3방
1-14	뛰어 양발앞차기		양발고축
1-20	이어차기 4방		고공 4단계
1-27	다방향 움직임격파		다방향 격파
2-36	9회연속회전 이단앞돌려차고 540도뒤후려차기격파		9회돌개차고 540도뒤후려차기

F 대학

번호	국기원	차이	소속 대학
1-14	뛰어양발앞차기	㉠, ㉡	양발고축
2-1	묵상		명상
2-2	연합동작		기본동작

2-3	장애물넘어이단옆차기		뛰어옆차기
2-4	이단앞차기		뛰어앞차기
2-5	양발앞차기		양발고축
2-9	장애물딛고돌려차기		가슴딛고돌려차기
2-12	일렬대형속도격파	㉢	-
2-14	멀리뛰어낙법		-
2-15	움직임 4방향 격파		-
2-17	등밟고 역회전 격파		-
2-21	3:1겨루기	㉠, ㉡	1:3호신술
2-26	호신술		1:1호신술
2-29	사과던져 공중회전격파		사과던져공중몸돌아앞차기
2-30	공중회전 양발 사과격파		공중몸돌아 양발앞차기
2-31	공중회전 한발 칼끝사과격파		공중몸돌아외발앞차기
2-32	눈가리고 사과돌개차기 후 공중회전격파		눈가리고 세트
2-36	9회 연속 회전 이단앞돌려차고 540도 뒤후려차기 격파		9회 돌개차고 540도뒤후리기
2-37	고단자 품새	㉢	-
2-39	단체격파		-
2-41	호신약속겨루기		-

3) 기타 의견

- 정확한 우리말로 표현을 해야 하고 시범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어떤 격파인 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국기원 대표 시범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길고 복잡하다. 따라서 연습할 때나 그 이외에도 쉽게 쓸 수 있는 용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 각 학교마다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과거의 잘못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예: 이단 앞차기). 또한 시범용어는 올바른 용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시범단에서 쓰이고 있는 시범용어는 통합(통일)되어야 한다.
- 명칭과 기술의 내용이 다르며 현재 틀린 용어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 실제 시범단에서 쓰이는 명칭은 좀 더 짧고 이해하기 쉽게 쓰이는데 프로그램에 적는 명칭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 용어의 비속어 등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현재 통일성이 없다. 또한 일반 사람들이 보왔을 때에도 이해하기 힘든 용어가 많다. 따라서 일반인과 시범단원이 모두

보았을 때 다 같이 알 수 있는 쉬운 용어를 만들었으면 한다.

4) 조사 후기

- 각 대학의 태권도 시범단장 혹은 단원들도 국기원 시범단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 많은 혼란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쓰이는 시범용어는 '준말'의 형태로서 대학별로 일부 다르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 시 주어진 단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응답자들이 소속 대학의 모든 시범용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 및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는 실제 차이에 대한 부분적 현상 캡처라고 판단할 수 있다.

-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소속 대학 시범단의 프로그램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였으며, 실제 E-mail을 통해 건네받은 각 대학의 시범단 프로그램에서도 공개 수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기원연구소 차원에서 각 대학 연구위원들의 협조를 통한 2차, 3차적 조사가 필수적이다.

3. 전문가 회의 결과

1. 분과별 심화 연구

1) 기본동작 및 품새

현재의 교본 체계를 [표 26]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6. 현재의 교본 체계 변경에 대한 제안

현재의 교본 체계	제안
5장 태권도의 기본동작 1. 태권도 신체의 사용부위 2. 태권도의 기본 3. 기본동작	5장 태권도의 기본 1. 공격 및 방어 목표 2. 공격 및 방어시 사용부위 3. 태권도의 기본기술 체계 4. 태권도의 기본동작 5. 유급자 지도를 위한 11개 기본동작
5장 태권도의 기본동작 1. 태권도 신체의 사용부위 가. 공격목표 부위(방어목표는 없음) 나. 공격 및 방어 사용부위 2. 태권도의 기본 3. 기본동작	5장 태권도의 기본 1. 공격 및 방어 목표 가. 공격 목표 나. 방어 목표 2. 공격 및 방어시 사용부위 주먹, 손, 팔(팔목, 팔굽), 발, 다리(정강이, 무릎) 3. 태권도의 기본기술 체계 가. 서기 나. 방어: 태산밀기, 끌어올리기, 손바닥거들어바깥막기, 얼굴거들어옆막기, 표적막기 1) 막기: 가) 거들어막기: 거들어막기, 손바닥거들어막기 안막기, 바깥막기 얼굴, 몸통, 아래 나) 표적막기 다) 올려아래막기 2) 잡기 및 빼기: 밑으로빼기, 위로빼기 다. 공격: 표적지르기, 표적치기, 비틀어한손날목치기 1) 지르기 가) 엎어지르기 나) 젖혀지르기 다) 치지르기: 솟음지르기 라) 표적지르기

현재의 교본 체계	제안
	마) 기타지르기: 디귿자 지르기 2) 치기 가) 턱치기 나) 목치기: 비틀어한손날목치기 다) 멍에치기 라) 표적치기 마) 옆구리치기 바) 기타치기 3) 찌르기 가) 거들어찌르기(서기만 다른 것은 제외) 4) 차기 가) 표적차기 라. 복합기술 1)복합방어: 태산밀기, 산틀(산틀, 헤쳐산틀, 손날등헤쳐산틀, 손날산틀), 외산틀, 손날외산틀, 가위, 황소, 금강, 손날금강막기 2)복합공격: 날개펴기, 큰돌쩌귀, 두주먹젖혀지르기, 두솟음지르기, 디귿자지르기, 젯다리지르기, 뒤지르기, 날개지르기, 멍에치기, 두메주먹옆구리치기, 두손날목치기, 두손날옆구리치기, 당겨턱치기 3)복합공방: 금강옆지르기, 제비품턱치기, 제비품목치기, 외산틀옆차기 4)복합기타: 멍에빼기, 마. 기타: 작은돌쩌귀, 바위밀기, 4. 태권도의 기본동작 가. 막기: 얼굴, 몸통안, 몸통바깥, 아래막기 나. 지르기: 몸통반대, 몸통세워, 몸통젖혀, 몸통돌려, 얼굴(턱)치지르기 다. 치기: 등주먹얼굴앞, 메주먹얼굴바깥, 손날목안, 바탕손턱앞, 팔굽돌려, 무릎올려치기 라. 찌르기: 편손끝세워찌르기 마. 차기: 앞, 뒤, 옆, 돌려, 후려, 내려, 안, 바깥, 표적차기 5. 유급자 지도를 위한 11개 기본동작 가. 기본준비서기 나. 주춤새 몸통지르기 다. 앞차기

현재의 교본 체계	제안
	라. 돌려차기 마. 옆차기 바. 아래막기 사. 몸통막기 아. 몸통바깥막기 자. 얼굴막기 차. 손날막기 카. 손날목치기 * 순서는 재조정하고 주춤새 몸통지르기가 있으므로 몸통지르기는 생략 * 등주먹이 들어가면 메주먹, 손끝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제외 * 주먹 6가지 중 1(주먹) * 손 13가지 중 1(손날) * 팔목 4가지 중 1(바깥팔목) * 발 8가지 중 4(앞축, 뒤축, 발날, 발등) * 팔굽, 정강이, 무릎 제외

▶ 몸돌려차기에 대한 제언

- 현재는 앞으로 몸을 돌리면 생략, 뒤로 몸을 돌리면 '몸돌려'
- 뒤로 도는 것을 표현하는 '뒤돌려'는 어떤가?
- 필요시 약칭 사용: 반뒤옆, 뒤후, 온뒤옆
- 돌개차기는 반몸뒤돌려앞발돌려차기
- 온몸돌려옆차기는 처음에는 앞으로 도는 형태이므로 2반몸뒤돌려옆차기

1. 앞발이 앞으로

2. 뒷발이 앞으로

    22. 2이나 뒤로 돌아

3. 뒷발이 앞발을 밀어주며 앞발 앞으로

4. 뒷발이 앞발을 지나가며 앞발 앞으로

    412. 4이나 앞으로뒤로 돌아

    421. 4이나 뒤로앞으로 돌아

2) 경기겨루기

1. 경기 겨루기의 개념

경기겨루기는 기존 품새의 기술체계와는 이질적인, 경기규정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기술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겨루기는 기술의 기초, 기술의 형태, 그리고 기술의 구조가 새롭게 재정되고 정립되어야 하며 용어 역시 이미 경기기술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동작들을 기준으로 새롭게 논의되어져야 한다.

2. 경기 겨루기의 기술체계

1) 기초기술
① 발놀림
② 차기기술 및 지르기
③ 서기자세

2) 응용기술
① 기술유형
② 전술

3. 기초기술의 분류

1) 발놀림의 개념
태권도 경기의 모든 동작에 있어서 발놀림은 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예비수단으로서 몸을 빠르게 이동시키거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발놀림은 공격과 방어시 타이밍을 맞추거나 상대선수의 공격력을 저지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역습의 기회를 얻고 상대선수의 허점이나 약점을 노출시켜 효과적인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발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을 말한다. 발놀림이라는 용어는 현장에서 스텝(STEP) 또는 보법이라고도 한다.

① 발놀림 용어 및 종류
- 제자리 움직이는 발놀림
- 옆으로 움직이는 발놀림
- 앞으로 움직이는 발놀림

● 뒤로 움직이는 발놀림

2) 차기기술 및 지르기의 개념

경기기술을 훈련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으로서 차기와 지르기로 구분할 수 있다. 차기동작은 발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르기 동작보다 공격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겨루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① 차기기술과 지르기 용어 및 종류

● 앞차기
● 돌려차기 : 몸통 돌려차기, 얼굴 돌려차기
● 옆차기
● 뒤차기: 공격뒤차기, 반격뒤차기
● 후려차기: 뒤후려차기, 앞후려차기
● 내려차기: 안내려차기, 바깥내려차기
● 밀어차기: 앞밀어차기, 옆밀어차기
● 발붙여차기
● 나래차기
● 돌개차기
● 지르기

② 차기기술의 내용

가. 앞차기

몸통 앞차기 기술은 무릎을 접어 앞으로 90°정도 끌어올려 상대의 몸통부분을 앞으로 차는 기술로서 차기동작 시 몸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딛고 있는 디딤 발을 중심으로 상체를 눕혀야 한다. 딛고 있는 디딤 발은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앞꿈치를 축으로 발바닥이 내측으로 140°정도 내전하며, 시선은 차는 발의 발끝을 주시하여야 한다.

나. 돌려차기 : 몸통 돌려차기, 얼굴 돌려차기

돌려차기 기술은 몸을 내측으로 회전하면서 허리를 틀어 발등으로 돌려차는 기술로서 실전경기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돌려차기 기술은 타격점의 높이에 따라 몸통 돌려차기와 얼굴 돌려차기 기술 크게 2가지로 나

눌 수 있으며, 자세별 차기유형에 따라서 앞발 돌려차기, 뒷발 돌려차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 옆차기

옆차기 기술은 몸을 내측으로 틀어 옆으로 뻗어차는 기술로서 차기동작의 기본원리를 습득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실전경기에서는 상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 동작을 저지 하거나 방어를 할 때 사용된다. 옆차기 기술은 타점의 높이에 따라 아래, 몸통, 얼굴 옆차기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보통은 몸통 옆차기로 연습을 한다.
몸통 옆차기 기술은 디딤 발을 축으로 무릎을 끌어올리면서 몸을 내측으로 틀어주며 동시에 나선형과 같이 돌면서 발뒤꿈치나 발 날을 이용해서 옆으로 뻗어차는 기술이다. 디딤 발의 다리는 무릎을 가볍게 펴고 디딤 발의 앞꿈치를 축으로 발바닥이 내측으로 220°정도 내전하며, 시선은 고개를 젖혀 어깨 너머로, 차는 발끝을 주시하여야 한다.

라. 뒤차기: 공격뒤차기, 반격뒤차기

뒤차기 기술은 몸을 등 뒤로 돌아서 뒤쪽으로 뻗어차는 동작으로서 실전경기에서 뒤차기 기술은 뒤돌아 공방을 하는 기술 중 사용빈도가 높은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뒤차기 기술은 차기 유형에 따라 발놀림 이용한 공격뒤차기, 반격뒤차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뒤차기 기술은 디딤 발을 축으로 몸을 등 뒤로 돌면서 무릎을 앞으로 끌어올리고 등 쪽이 정면을 향할 때 발뒤꿈치나 발 날을 이용해서 등 뒤쪽으로 뻗어차는 기술이다. 디딤 발은 앞꿈치를 축으로 130°정도 외전하며, 무릎은 등 쪽이 정면을 향할 때까지 약간 구부린 상태로 유지하다가 발을 뻗어찰 때 무릎을 완전히 편다. 시선은 어깨 너머로 차는 발의 발끝을 주시한다.

마. 후려차기: 뒤후려차기, 앞후려차기

후려차기 기술은 몸통을 내측으로 틀면서 안쪽에서 바깥쪽 후려차는 동작으로서 실전경기에서는 상대가 들어올 때 얼굴부위를 받아차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후려차기 기술은 차기 유형에 따라 뒷발을 이용한 뒷발 후려차기와 앞발을 이용한 앞발 후려차기 기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앞 후려차기 기술은 뒷발을 축으로 앞발의 무릎을 접어 끌어올리고 발바닥이나 발뒤꿈치를 이용해서 타격점에서 15~30 cm 정도 떨어진 안쪽 정면을 향해 뿌리듯이 뻗었다 바깥쪽으로 접으면서 차는 기술로서 차는 발을 접어 후려찰 때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디딤 발의 무릎은 가볍게 펴고 디딤 발의 앞꿈치를

축으로 발바닥이 90°정도 내전하며, 시선은 고개를 젖혀 어깨 너머로 차는 발끝을 주시하여야 한다.

뒤후려차기 기술은 몸을 등 뒤로 돌아 회전하면서 등 뒤쪽으로 후려차는 동작으로서 실전경기에서 뒤후려차기는 뒤로 돌면서 상대선수의 얼굴부위를 공격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뒤후려차기 기술은 차기유형에 따라 발놀림을 이용한 공격 뒤후려차기, 반격 뒤후려차기, 뛰어뒤후려차기 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바. 내려차기: 안내려차기, 바깥내려차기

내려차기 기술은 발을 얼굴 위로 끌어올리면서 얼굴부위를 내려차는 기술로 실전경기에서는 주로 상대선수가 접근을 하거나 뒤로 물러설 때 얼굴부위를 공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이다.

내려차기 기술은 차기 형태에 따라 밖에서 안으로 내려차는 방법과 안에서 밖으로 내려차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내려차기 기술은 디딤 발을 축으로 무릎을 접어 가슴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고 발을 얼굴부위로 올리면서 발바닥이나 발뒤꿈치로 내려차는 동작으로서 내려찰 때에는 몸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체를 세워야 한다. 내려차기 시 상대선수의 받아차기에 대비하여 차는 발의 반대쪽 팔은 몸통 부위를 방어해야 한다. 딛고 있는 디딤 발은 무릎을 곧게 펴고 앞꿈치를 축으로 130°정도 내전하며, 시선은 차는 발의 발끝을 주시하여야 한다.

사. 밀어차기: 앞밀어차기, 옆밀어차기

밀어차기 기술은 발바닥으로 무릎을 45도방향으로 틀어주는 앞밀기와 180도 옆차기식 밀어차기로 구분할 수 있다. 밀어차기는 무릎의 단력을 이용해서 밀어 주는 동작이다. 앞차기식으로 밀어주면서 공격하는 방법과 상대 공격시 옆차는 방식으로 상대기술을 차단하는 기술방법이다.

자. 발붙여차기

발붙여차기 기술은 축이 되는 앞발 쪽으로 뒷발을 끌어붙이는 동시에 앞무릎을 접어 사선으로 90°정도 끌어올리면서 허리를 틀어주고 발등으로 몸통 부분을 돌려차는 기술이다.

발붙여내려차기 기술은 축이 되는 앞발 쪽으로 뒷발을 끌어붙이는 동시에 앞무릎을 가슴까지 최대한 접어들며, 발을 얼굴부위로 끌어올리면서 발바닥이나 발뒤꿈치로 내려차는 동작으로서 내려찰 때에는 몸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체를 세워야 한다.

차. 나래차기

나래차기 기술은 타격점의 높이에 따라 몸통 나래차기와 얼굴 나래차기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차기 유형에 따라서 앞발을 이용한 나래차기, 뒷발을 이용한 나래차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앞발을 이용한 나래차기 기술은 뒷발을 축으로 앞발의 무릎을 접어 사선으로 90°정도 끌어올리면서 허리를 틀어주고 발등으로 몸통부분을 돌려찬 후 공중에서 축이 되는 뒷발을 점프하면서 뒷발의 무릎을 접어 사선으로 90°정도 끌어올리면서 허리를 틀어 몸통 부분을 돌려차는 기술이다. 상체는 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곧게 세워야 한다.

카. 돌개차기

돌개차기 기술은 앞발이 축이 되어 등 뒤로 뛰어돌면서 동시에 공중에서 축이 되는 앞발의 무릎을 접어 끌어올리고 허리를 틀어 몸통 부분을 돌려차는 기술이다. 상체는 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곧게 세우며, 몸이 등 뒤로 돌 때 시선은 공격 목표지점과 상대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면서 돌아야 한다.

하. 지르기

지르기 기술은 주먹을 이용해서 몸통을 지르는 동작으로서 실전경기에서는 상대의 공격을 막으면서 주먹을 지르거나, 복합동작 시 주먹을 지르면서 연결동작으로 이어질 때 사용된다.

지르기 기술은 지르는 유형에 따라 앞주먹 지르기와 뒷주먹 지르기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앞주먹 지르기 기술은 뒤 팔로 막으면서 방어하고 앞주먹으로 지르는 기술로서 주로 상대선수가 앞발을 이용해서 공격할 때 사용한다.

3) 서기자세의 개념

① 서기자세의 종류

가. 자신의 발 위치에 따른 서기자세

선수 자신이 서 있는 형태의 서기자세에 따라 오른 자세와 왼 자세로 구분될 수 있다. 오른 자세는 왼발을 앞에 놓고 오른발을 뒤에 놓은 자세이며, 왼 자세는 오른발을 앞에 놓고 왼발을 뒤에 놓은 자세이다. 서기자세의 명칭은 뒤에 위치한 발에 초점을

맞춘다.

- 오른 자세 – 왼발을 앞에 놓고 오른발을 뒤에 놓은 자세
- 왼 자세 – 오른발을 앞에 놓고 왼발을 뒤에 놓은 자세

나. 상대의 발 위치에 따른 서기자세

태권도 겨루기 시 상대선수와의 서기 형태에 따라 엇서기 자세와 맞서기 자세로 구분될 수 있다. 엇서기 자세는 두 선수가 서로 같은 자세를 취한 형태를 말하며 맞서기 자세는 두 선수가 서로 다른 자세를 잡은 형태를 말한다.

- 엇서기 자세 – 두 선수가 같은 자세를 잡은 자세
  (오른 자세 : 오른 자세, 왼 자세 : 왼 자세)
- 맞서기 자세 – 두 선수가 다른 자세를 잡은 자세
  (오른 자세 : 왼 자세, 왼 자세 : 오른 자세)

4. 응용기술의 분류

1) 기술유형의 개념

기술유형이란 경기 사항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신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태권도 경기에서는 빠른 판단력과 예지력이 필요하며, 또한 민첩성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태권도 경기에 있어 기술유형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상대의 허점을 파악한 후 먼저 기술을 시도하는 공격기술과 상대선수의 선제공격에 대응하여 받아차거나 반격을 시도하는 방어기술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기술유형의 종류 및 용어

가. 공격기술
- 단일공격 – 단일동작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것.
- 복합공격 – 단일동작 이상의 기술을 연결시켜 연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것.

나. 방어기술

- 반 격
  - 단일반격 - 단일동작으로 역습을 시도하는 기술
  - 복합반격 - 단일동작 이상의 기술을 연결시켜 연속적으로 역습을 시도하는 기술
- 받아차기
  - 단일받아차기 - 단일동작으로 받아차는 기술
  - 복합받아차기 - 단일동작 이상의 기술을 연결시켜 연속적으로 받아차는 기술

2) 전술

태권도 경기에서의 전술이란 시합에서 행해질 수 있는 모든 상황 즉, 수단, 방법, 행동 전체를 뜻하며, 전략은 경기 규칙에 의한 자신과 상대선수의 가능한 모든 행동양식과 자신과 상대선수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시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결정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전술적 행동에서 우선 선수는 시합 사항을 지각하고 분석한 후에 이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결정한 후, 실제 그 방안대로 행동하며, 행동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비교검토하여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술이 목표달성에 효과적인가를 알아야 한다. 특히, 상황 판단과 기술 선택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태권도 경기에서는 상대선수의 의도나 움직임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이에 적합한 기술을 정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함께 키워야 한다.

전술훈련 방법은 기본 전술훈련과 시합 상황에 따른 대응 전술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 전술훈련은 시합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 동작 패턴을 실제 기술훈련에 적응시키는 훈련이라 할 수 있으며, 대응 전술훈련은 수시로 변하는 다양한 시합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동작 패턴을 실제 기술훈련에 적용시키는 훈련이다.

3) 시범

각 대학 태권도학과 시범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범 관련 용어를 설문조사 받아 정리하여 다음 [표 2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차후 시범 용어 정립을 통하여 시범 기술에 대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표 27. 국기원 시범단과 각 대학 태권도학과 시범단 기술 용어 종합

분류		구성	요약 설명	유사 지칭어
● (기본)연합동작		기본동작	손과 발을 이용한 다양한 종합기술	기본동작, 연합동작
● 창작 품새			유급자, 유단자 품새 외의 창작하여 만든 품새	
● 음악 품새			음악에 맞추어 태권도 동작을 조합하여 만든 품새	
● 태권체조			음악에 맞춰 태권도와 체조 동작을 접목해서 만든 품새	태권(에어)로빅
● 호신(약속)겨루기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대련하는 1:1~3 겨루기	(1:1),(1:3),(여성),(한번)호신겨루기
● 격파	위력	앞차기	앞축 앞차기	
		돌려차기	발등 돌려차기	(앞), (몸통)돌려차기
		뒤차기		몸돌아뒤차기, 뒤돌아옆차기
		뒤후려차기		뒤후리기, 회축
	고공	모둠발(뛰어)앞차기	뛰어 두 발을 모아 앞축 혹은 발등차기	모둠발고축
		양발(뛰어)앞차기	뛰어 두 발을 벌려서 앞축 혹은 발등차기	양발고축(뛰어앞차기)
		뛰어옆차기	뛰어 발날 혹은 뒤축을 이용하여 옆차기	이단옆차기
		걸고 (뛰어)뒤차기	A발을 주고 뒤돌며 뛰어 B발 뒤차기	걸고 뒤차기

분류		구성	요약 설명	유사 지칭어
		걸고 (뛰어)뒤후리기	A발을 주고 뒤돌며 뛰어 B발 뒤후려차기	360도 뒤후리기
		돌개차기	뒤돌아 뛰어 돌려차기	턴차기, 온몸돌아차기, 이단 앞돌려차기
	여성	뒤후려차기 3방 후 돌개차기	연속 3번 뒤후려차기 후 앞돌며 딛고 돌개차기	후리기 4단계, 4단 뒤후리기, 후려차기 3방 후 돌개차기
		나래차기 2회 후 돌개차기	나래차기 두 번 후 돌개차기	수직나래 4방 후 돌개차기
		여성일렬	일렬로 준비된 목표물을 앞으로 나아가며 연속 격파	
	도약	앞차기3단계	뛰어 A-B-A발 (발등), (압축) 앞차기	앞(차기) 3방
		돌려차기3단계	뛰어 A-B-A발 발등 돌려차기	돌(려차기) 3방
		뛰어차기4단계	뛰며 A-B발 앞차고 A발 돌려찬 후 A발 뒤후려차기	이어차기 4방, 고공 4단계
		가위(차기)2~5방	뛰어 A발 앞차기와 B발 옆차기를 동시에 차기(2방) + B발을 당겨 돌려차기(3방) + B주먹까지(4방) + 4방 전 B발 앞차기를 한 후 4방차기	
	장애물	가슴딛고 돌려차기	팔짱을 낀 사람의 가슴을 딛고 돌려차기	장애물 딛고(밟고) 돌려차기
		가슴딛고 돌개차기	팔짱을 낀 사람의 가슴을 딛고 돌개차기	장애물 딛고(밟고) 턴
		어깨딛고 뛰어앞차기	(세)사람의 어깨를 딛고 뛰어 앞차기	
		등딛고 앞차기 3단계	네사람 등을 딛은 후 뛰어 앞차기 3번	
		가슴딛고 뛰어앞차기	팔짱을 낀 사람의 가슴을 딛고 뛰어앞차기	

분류		구성	요약 설명	유사 지칭어
		가슴딛고 뛰어돌려차기	팔짱을 낀 사람의 가슴을 딛고 뛰어돌려차기	
	수직축회전	(뛰어)540도 뒤후려차기 1,2,3단계	뒤돌아 뛰어 540도 돌며 뒤후려차기	540도(1~3단계)
		뒤후려차기9방 후 540도 뒤후려차기	제자리 9회 뒤후려차기 후 뛰어 540도 뒤후려차기	뒤후리기10방
		돌개차기 9방 후 540도 뒤후려차기	연속 9회 돌개차기 후 540도 뒤후려차기	10회 돌개차기
		(뛰어)540도 돌개차기	걸고 뒤돌며 뛰어 540도 돌며 돌개차기	
		(뛰어)720도 돌개차기	뒤돌아 뛰어 720도 돌며 돌개차기	
	수평축회전	뒤공중양발앞차기	온몸 뒤공중돌아 양발 앞차기	양발회전
		뒤공중한발앞차기	온몸 뒤공중돌아 한발 앞차기	한발회전
		던지고 뒤공중한발앞차기	공중에 목표물을 던진 후 온몸 뒤공중돌아 한발 앞차기	던져회전
		던지고 내딛으며뒤공중한발앞차기	공중에 목표물을 던진 후 앞으로 달려가며 한 발로 뛰며 온몸 뒤공중돌아차기	던져역회전
		가슴딛고뒤공중돌아앞차기	팔짱 낀 사람의 가슴을 한발로 딛고 온몸 뒤공중돌아 앞차기	딛고회전
		(고공)뒤공중돌아한발발차기	무릎 위 깍지 낀 손을 한발로 딛고 온몸뒤공중돌며 한발앞차기	라스트1단계
		(고공)뒤공중돌아양발앞차	깍지 낀 사람의 가슴을 양발로 딛고 온몸 뒤공중돌아 양발	라스트2단계

분류		구성	요약 설명	유사 지칭어
		기	앞차기	
	속도(스피드)	일렬격파	일렬로 준비된 목표물을 연속으로 격파	
		방향격파	사방에서 튀어 나오는 목표물을 연속으로 격파	다방향격파
	정확성	눈가리고돌개차기	눈을 가린 후 돌개차기	
		눈가리고외발돌개차기	눈을 가린 후 외발돌개차기	
		눈가리고 (뛰어)540도뒤후려차기	눈을 가린 후 뛰어 540도 뒤후려차기	
		눈가리고 한발뒤공중앞차기	눈을 가린 후 온몸 뒤공중돌아 한발 앞차기	
		눈가리고 양발뒤공중앞차기	눈을 가린 후 온몸 뒤공중돌아 양발 앞차기	

※ 참고

▶ '단계'는 높이에 따른 연속차기에 붙음

▶ '방'은 한자어로서 가격하는 횟수를 의미함

방[放][의존명사] 1 총포를 쏘거나 남포 따위를 터뜨리는 횟수를 세는 단위. 2 주먹, 방망이 따위로 치는 횟수를 세는 단위. 3 사진을 찍는 횟수나 필름의 장수(張數)를 세는 단위

▶ 이상은 국기원, 대학 태권도 시범단 프로그램을 토대로 종합하여 임시로 나눈 임시 분류표와 약식가칭임

▶ 모든 시범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Daum, Naver, Cyworld, Google"등에서 키워드 "태권도, 시범"등으로 검색하여 나온 영상에서 나온 기술 중 위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술에 대한 최근 현황을 알기위해 조사 후 아래 붙임

- 아래는 현재 일선 도장 및 일부 대학시범단, 사설시범단에서 간혹 쓰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기원 및 대부분의 대학 시범단에서는 활용빈도가 극히 낮은 것들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마샬아츠라는 서양식 종합동양무술에서 사용되는 기술로서 태권도의 차기기술에 체조나 쿵푸의 스텝 및 점핑이 가미되어 태권도에서 흡수하여야 할 지는 추후 깊은 논의가 필요함

1. 훌턴(체조동작- 뛰는동시에 착지까지 360도 회전-최근 이 기술을 이용해 많은 격파 시범이 이루어짐)
2. 모둠발 돌려차기=>국기원시범단사용확인, 국기원프로그램현황엔 기재안됨
3. 모둠발 옆차기=>국기원시범단사용확인, 국기원프로그램현황엔 기재안됨
4. 45도 회축(하우스턴)-최근 이 기술을 이용해 많은 격파 시범이 이루어짐
5. 찡코, 더블렉(구부리기, 펴기)-최근 이 기술을 이용해 많은 격파 시범이 이루어짐
6. 반달(플래시킥)-공중에서 발을 여러 번 차는 듯한 뒤공중돌기
7. 공중 두발 모았다 한발 펴면서 차기(옆으로 돌면서)-(설명하기 난해함..)
8. 가슴 딛고 외발=>국기원시범단 사용확인, 국기원프로그램현황엔 기재안됨
9. 공중 (앞차고) 앞차고 돌려차고 뒤차기-최근 이 기술을 이용해 많은 격파 시범이 이루어짐
10. 720도 돌려차기(한번or두번격파)=>주로 한번 격파 목적으로 이용됨
11. 900도 뒤후리기(한번격파)=>타격력이 거의 없으며 말그대로 시범용 기술
12. 45도 회축(한번격파)-최근 이 기술을 이용해 많은 격파 시범이 이루어짐

13. 스완-온몸을 활처럼 편채로 뒤공중돌기(차기라고 볼 수 있을지는 논의필요..)
14. 옆차기 4방(B-A-B-B)=>국기원시범단사용확인, 국기원프로그램현황엔 기재안됨.
15. 돌려차기 4방(B-A-B-B) =>돌려차기3번, 옆차기 1번=>국기원시범단사용확인, 국기원프로그램현황엔 기재안됨
16. 제자리 훌턴, 벽짚고 훌턴=>참고
17. 벽 한, 두발 딛고 공중돌기, 벽옆발로 짚고 옆돌기=>고난이도의 기술로서 아직은 활용빈도가 매우 낮지만 시범활용 가능성이 높음
18. 앞공중돌며 B발 찍기=>앞공중돌기를 하며 한발로 목표물을 내려차며 동시에 한발은 착지하는 기술
19. 옆발로 짚고 앞돌기=>참고
20. 에어로빅식 뒤후려차기=>상체를 급히 숙이며 한발을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리는 동작(태권시범에서 많이 쓰이나 에어로빅에서 나타난 동작)
21. 반달모양으로 찍어돌려차기=>상체를 급히 숙이며 한발을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리는 동작(태권시범에서 많이쓰이나 에어로빅에서 나타난동작)
22. 석고(측전)=>공중 옆돌기
23. 앞차며 공중돌기=>한발 걷어차며 뒤공중돌기
24. 옆차며 공중돌기=>한발 옆차며 반대방향 뒤공중돌기
25. 뒤돌아 이단앞차기식 쭈가리(싸이드와이프)=>뒤도는 동시에 뛰어앞차는식으로 뒤공중돌아차기
26. 천천히 기본발차기=>슬로우버젼?
27. 훅(뒤후려차기식으로 한발 주는 거)=>운동방향은 후리기 전의 뒤후려차기 직전까지 모양으로 뒤돌며 툭하고 던져주는 발차기 아닌 발차기?
28. 일루션(앞돌며 축발이 되어야 할 발을 땅에 안딛고 뛰어 반대발을 크게 돌리며 찍어차는 것)-쉽게 말하면 ‘반대 360도 내려차기’, 참고로 (정)360도 내려차기는 돌개찍기(가칭)로 뒤돌아 뛰어 찍기임.

2. 용어정립 기준안 및 분류안

1) 김세중 위원 용어정립 기준안

○ 어떤 자세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방법) + 어느 곳을(목표) + 수식어 + 뭐 할 것(결과행동=목적) : 결국 결과행동어를 중심으로 단어 간에 자연스런 수식이 되게 한다.

(국기원 용어는,'사용부위 + 목표 + 방법 + 결과행동'으로 돼 있음)

○ 용어는 띄어쓰기를 한다. 단, 한 단어를 띄어쓸 경우 앞 뒤 단어와 얽혀 혼란이 생긴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단어는 띄우지 않고 붙인다. (예 : 얼굴옆/옆얼굴, 몸통옆/옆몸통, 바깥팔목/안팔목, 바깥손날, 앞얼굴/얼굴앞, 바깥얼굴/얼굴바깥, 굽힌손목, 한손날/바깥손날, 손날등/등손날, 반몸/온몸 등 : 이 단어들 중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지와 한 단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례를 통해 고민해 봐야 할 것임)

○ 하나의 단어 안에 두 동작(자세)이 포함된 경우(예:바로/반대), 이 말이 수식하는 단어 앞에 둔다.(예 : 편주먹 몸통 바로 지르기, 편주먹 얼굴 반대 지르기 등) 또는 '바로'와 '반대'의 뜻 이해가 1차적이지 않으므로 고칠 필요도 있을 것임

○ 목표가 없는 기본단어의 어순은 '목표'를 빼고 위의 순서대로 따른다.(예:안팔목 막기)

○ 용어는 구령자의 호흡을 고려하여 편한 것으로 한다.

○ 용어는 소리로 들었을 때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쉬운 말을 선택한다.

○ 용어는 토박이말로 한다.

○ 특정 동작에 용어가 여러 개 있으면 이를 최대한 수집한 후 위의 어순에 맞으면서 구령 호흡과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하되, 이에 적합한 것이 없으면 용어 정립 기준에 따라 새로 다듬는다. 단 미세한 기술 차이가 있어 별도의 용어가 필요하다면 모아두었다가 뒤에 기술위원회와 따로 논의한다.

○ 사전을 만들 때는 하나의 행동에 여러 용어가 있는 경우, 이들 용어를 다 올려주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준 용어를 쓰도록 화살표로 표시하여 준다.

○ 위원회의 향후 토의 방법은 기존의 용어들 중 몇 개의 유형들을 무작위로 뽑아 하나하나 심의하여 어순과 용어가 어찌 되면 좋은지를 토의한 후 특정 방향이 잡히면 그에 따라 용어를 정리해 보라고 하여 모은 후 어려운 점이 있던 사례를 가지고 재심의 토론하여 '용어 정립 기준'을 수정하거나 추가,삭제하여 나간다. 향후 방향은 이와 같은 절차로 한다.

[용어 다듬은 사례 - 토의용] : '->' 왼쪽의 것은 국기원 용어임

손날얼굴옆막기 -> 손날 얼굴옆 막기 / 손날 옆얼굴 막기

손날 얼굴 옆막기 / 손날옆 얼굴 막기 (이런 오해 가능)

손날얼굴헤쳐막기 -> 손날 헤쳐 얼굴 막기

손날얼굴엇걸어막기 -> 손날 엇걸어 얼굴 막기

손날몸통바깥막기 -> 손날 바깥몸통 막기 (‘바깥몸통’을 한 단어로 인식). 즉, 원 조어 순서는 ‘손날로 몸통의 바깥을 막기’가 되어 ‘몸통 바깥 막기’가 되겠지만 목표어를 뒤에 두는 것이 듣는 사람의 이해가 쉬우므로 익숙해진다면 ‘바깥몸통 막기’가 더 편할 수 있다. ‘손날 바깥몸통 막기’가 구령하는 사람의 호흡에도 잘 맞는다.

손날몸통옆막기 -> 손날 옆몸통 막기 / 손날 몸통옆 막기

손날옆 몸통 막기 / 손날 몸통 옆막기 (이런 오해 가능)

손날아래바깥막기 = 손날아래막기 -> (바깥)손날 아래 막기

안팔목몸통거들어바깥막기 = 안팔목몸통거들어막기 -> 안팔목 거들어 (바깥)몸통 막기

안팔목몸통옆막기 = 몸통옆막기 -> (안팔목) 옆몸통 막기

바깥팔목아래헤쳐막기 = 아래헤쳐막기 -> (바깥팔목) 헤쳐 아래 막기 (‘헤침’은 손뿐임)

바깥팔목아래엇걸어막기 = 아래엇걸어막기 -> (바깥팔목) 엇걸어 아래 막기

안팔목얼굴바깥막기 = 알팔목얼굴바깥막기 -> 안팔목 바깥얼굴 막기

(여기서는 ‘안얼굴’이 없으니까 그냥 ‘안팔목 얼굴 바깥막기’일까?)

바깥팔목얼굴바깥막기 = 얼굴바깥막기 -> (바깥팔목) 바깥얼굴 막기

바깥팔목얼굴추켜막기 = 얼굴막기 -> (바깔팔목) (추켜) 얼굴 막기

굽힌손목얼굴추켜막기 = 굽힌손목얼굴막기 -> 굽힌손목 추켜 얼굴 막기

손날등아래바깥막기 = 손날등아래막기 -> (바깥)손날등 아래 막기 / 등손날 ?)

손날등몸통헤쳐막기 = 손날등몸통헤쳐막기 -> 등손날(?) 헤쳐 몸통 막기

편주먹얼굴바로지르기 -> 편주먹 얼굴 바로 지르기 (바로와 반대에는 ‘고유모습’이 있음)

편주먹얼굴반대지르기 -> 편주먹 얼굴 반대 지르기

편주먹바로내려지르기 -> 편주먹 내려 바로 지르기

편주먹얼굴반대세워지르기 -> 편주먹 세워 얼굴 반대 지르기

편주먹몸통바로세워지르기 -> 편주먹 세워 몸통 바로 지르기

반몸돌려차기 -> 반몸돌려차기

몸돌려날아차기 -> 몸돌려날아차기

온몸돌려날아차기 -> 온몸돌려날아차기

뛰어몸돌며낚아차기 -> 뛰어몸돌며낚아차기

사과 던져 공중회전 격파 -> 사과 던져 공중회전 격파 / 공중회전 사과 격파

공중회전 양발 사과격파 -> 공중회전 양발 사과 격파

공중회전 한발 칼끝사과격파 -> 공중회전 한발 칼끝 사과 격파

장애물넘어이단옆차기 -> 장애물 넘어 이단 옆차기
온몸돌려비틀어차기 -> 온몸 돌려 비틀어 차기
왼발몸통뛰어일자차기 -> 왼발 뛰어 몸통 일자 차기
몸돌려 낚아 차기
온몸돌려 비틀어 차기
반몸돌려 뻗어 차기
앞발얼굴받아차기
뒷발얼굴받아차기
뒷발몸통받아차기

2) 김중헌 위원 용어정립 기준안

▷ 명칭 부여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고려 사항

- ○ 상징성
  - 범서기, 산 틀 막기, 금강 막기, 돌개 차기, 나래 차기 등
- ○ 기능성
  - 칫다리 지르기, 몸통 (안, 바깥) 막기, 얼굴 지르기, 목 치기 등
- ○ 설명성
  - 나란히 서기, 쳐 올려 막기,

▷ 명칭 부여 시 어순

- ○ 기능
  - 막기, 차기 등
- ○ 신체부위 (얼굴 막기 시)
  - 방어부위
    - 얼굴
      - 앞, 옆
  - 방어 시 사용 부위
    - 바깥/안 팔목
    - 손 날 (등)
- ○ 방향
  - 위, 아래, 옆, 앞, 바깥, 안, 사선 (대각선), 돌려 등
- ○ 모양/상태
  - 칫다리, ‘ㄷ’ 자 지르기 등

▷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

○ 국어적 어순에 따라

- 중성분 선치 현상
- 중성분-경성분
  - 핵 어와 지나치게 멀어지는 것을 방지

○ 태권도 고유 어순: 국기원 용어 설명 기준

○ 동작의 순서

- 온몸돌려후려차기

○ 표현의 편리

- 안차기, 바깥차기
- 뒤돌아 후려차기 (뒤 후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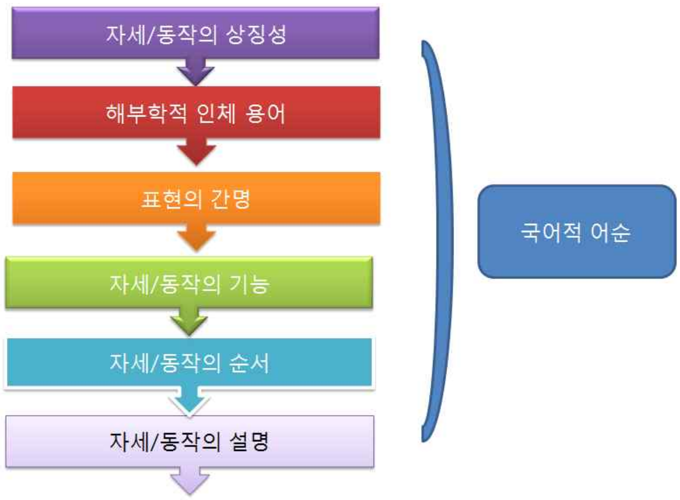
▷ 사용 예 : 얼굴 비틀어 막기 (국기원)

- 비틀어 얼굴 막기
- (손 날) 얼굴 비틀어 막기
- 비틀어 (손 날) 얼굴 막기
- (온몸/몸통) 비틀어 얼굴 막기
- (온몸/몸통) 비틀어 (손 날) 얼굴 막기
- (손 날) (온몸/몸통) 비틀어 얼굴 막기

▷ 비틀어 막기 (간명한 표현)

- 얼굴, 몸통
- 손 날, 팔목

▷ 제언



3) 태권도 용어정립 기준안 3가지 비교

표 28. 교본상의 고려 품새 품명과 위원들의 용어기준에 따른 정리

순서	품명	박승용 위원	김세중 위원	김중헌 위원
기준		수량+사용부위+목표+모양+방향+기술종류	방법+목표+수식어+목적	기능, 신체부위+방향+모양상태
준비	통밀기준비서기	두손날얼굴통밀기준비서기	통밀기준비서기	통밀기준비서기
1	손날몸통막기	손날몸통거들어막기	손날 몸통 막기	손날몸통막기
2	손날바깥치기	손날목치기	손날 바깥몸통 치기	손날몸통바깥치기
3	몸통바로지르기	몸통지르기	몸통 지르기	몸통지르기
4	몸통막기	바깥팔목몸통안막기	바깥팔목 몸통 막기	몸통막기
5	칼재비	아귀손목치기(칼재비)	칼재비	칼재비
6	무릎꺾기	두아귀손무릎올려내려꺽기	무릎 꺾기	무릎꺾기
7	안팔목몸통헤쳐막기	두안팔목몸통헤쳐막기	(안팔목) 몸통 헤쳐 막기	안팔목몸통헤쳐막기
8	왼한손날몸통옆막기	손날몸통바깥옆막기	한손날 몸통 옆막기	한손날몸통옆막기
9	오른주먹표적지르기	표적몸통왼쪽지르기	주먹 표적 지르기	주먹표적몸통지르기
10	편손끝아래젖혀찌르기	편손끝아래당겨젖혀찌르기	손끝 젖혀 아래 지르기	편손끝아래당겨젖혀찌르기
11	아래막기	바깥팔목아래막기	바깥팔목 아래 막기	아래막기
12	오른팔굽옆치기	팔굽몸통옆치기	팔굽 옆치기	팔굽옆치기
13	오른한손날몸통옆막기	손날몸통바깥옆막기	한손날 몸통옆 막기	한손날몸통옆바깥막기
14	왼메주먹아래표적치기	메주먹표적아래안치기		메주먹표적아래안치기
15	한손날아래막기	손날아래막기	(바깥)손날 아래 막기	한손날아래막기

4) 박정호 보조연구원 CBDA 용어정립 기준안

가. 기술구조체계

	분류	동작 · 모양	신체사용부위	공격목표 · 방어부위	세부사용부위
기호	A	B	C	D	( )$^{+}$
활용	하다	어떻게	~(으)로	~(을)를	접두사, 접미사, 명사, 대명사, 수사
성분	서술어 (어찌하다)		부사어	목적어	

나. "CDBA 용어배열법칙 활용" ⇨ [{~(으)로} +{~(을)를} +{(어떻게) +(하다)=(어찌하다)}], 이 중 'A, B'는 용언, 'C, D'는 체언의 기능

- 태권도 용어는 **전통적인 한국어순과 완전일치** [따라서 한국어의 특성과 같이 생략 혹은 자리바꿈(C⇔D)도 상황에 따라 가능]
- 태권도 용어는 **한국어중심의 어휘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후 용어 **번역 시에는 해당 국가어의 어순 고려**
- 기호 A의 '하다'는 동사의 명사형인 '하기'의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지르기, 찌르기, 치기, 막기, 차기"와 같은 형태로 변화됨
- 기호 B의 '어떻게'의 원형은 부사 '어찌'이며 기호 A와 합쳐져 하나의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됨
- 기호 C, D 의 "~(으)로, ~(을)를"과 같은 (부사격)조사는, 기술지도 시 편의성에 의해 생략되며 사용되었다고 사료 됨

예) 돌려차기 함의 분석(한국어의 선형구조는 **좌분지 언어**로 이 때문에 **중요한 말이 뒤로 가고 꾸며주는 말이 앞에 오게 됨**)

활용	분류	동작 · 모양	신체사용부위	공격목표 · 방어부위
A	차기	돌려	압축 / 발등	앞
BA	돌려차기			
CBA	앞축돌려차기 / 발등돌려차기			
CDBA	앞축앞돌려차기 / 발등앞돌려차기			

다. **특수몸짓**(손짓+발짓)**표현 활용**

- 기존의 태권도 시범 내에서 쓰이는 여러 응용기술을 비롯해 최근 Martial Arts 기술의 경우 "B+B+CDBA"의 형태가 이루어지며 용

어가 장문화 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이때에는 **편의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단계**'[段階] 높이에 따른 연속차기에 붙음", "'**방**'[放] 가격하는 횟수를 의미함"등의 기존의 **한자어조합을 허용**함

라. 실제대입 및 결과 산출

- 이하의 '1~2'는 국기원 태권도 교본에 나타난 용어에 준하였기 때문에 해당 용어에 숨겨진 함의 분석에 대해서는 차후 제시하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고려(품새)와 차기기술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어순이 "CDBA 용어배열법칙"에 어긋나는 용어만을 오류로 규정하였다.
- 이하의 '3'은 국기원 시범단 프로그램 및 전국주요 7개 대학의 시범프로그램을 통합 정리하여, 선별한 기술용어를 표로 정리한 것으로써 용어 내에 "하며(하고), 후, 단계, 방"과 같은 조사나 명사가 첨가돼있을 경우 기술용어를 하나의 어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로 어휘와 어휘가 이어진다는 표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 어휘 내에서 "CDBA 배열법칙"에 의해 분류가 가능할 경우 '/'를 이용하여 나누어진다는 표기를 사용하였다.

(1) 적용부분: 고려(품새) 품명 (국기원교본용어: 총 30개의 표본 중 29개 Pass, 1개 Fail)

순서	품명	CDBA 분류	CDBA법칙 적용	결과	오류수정
준비	통밀기준비서기	통/밀기+준비+서기	BA—A—A	허용	준비자세이므로 허용
1	손날몸통막기	손날/몸통/막기	CDA	Pass	-
2	손날바깥치기	손날/바깥/치기	CDA	P	-
3	몸통바로지르기	몸통/바로/지르기	DBA	P	-
4	몸통막기	몸통/막기	DA	P	-
5	손날몸통막기	손날/몸통/막기	CDA	P	-
6	손날바깥치기	손날/바깥/치기	CDA	P	-

7	몸통바로지르기	몸통/바로/지르기	DBA	P	–
8	몸통막기	몸통/막기	DA	P	–
9	칼재비	칼재비	B	P	–
10	아귀손목치기	아귀손/목/치기	$C^{+}DA$	P	–
11	칼재비-기합-	칼재비-기합-	B	P	–
12	무릎꺽기	무릎/꺽기	DA	P	–
13	안팔목몸통헤쳐막기	안팔목/몸통/헤쳐/막기	$C^{+}DBA$	P	–
14	무릎꺽기	무릎/꺽기	DA	P	–
15	안팔목몸통헤쳐막기	안팔목/몸통/헤쳐/막기	$C^{+}DBA$	P	–
16	왼한손날몸통옆막기	왼한손날/몸통옆/막기	$C^{+}D^{+}A$	P	–
17	오른주먹표적찌르기	오른주먹/표적/찌르기	$C^{+}BA$	P	–
18	편손끝아래제쳐찌르기	편손끝/아래/제쳐/찌르기	$C^{+}DBA$	P	–
19	아래막기	아래/막기	BA	P	–
20	오른발굽옆치기	오른발굽/옆/치기	$C^{+}DA$	P	–
21	두다리제자리주춤서기	두다리/제자리/주춤/서기	$C^{+}BBA$	Fail	⇨ $C^{+}BA$ 두다리주춤서기
22	왼주먹표적찌르기	왼주먹/표적/찌르기	$C^{+}DA$	P	–
23	편손끝아래젖혀지르기	편손끝/아래/젖혀/지르기	$C^{+}DBA$	P	–
24	아래막기	아래/막기	DA	P	–
25	왼팔굽옆치기	왼팔굽/옆/치기	$C^{+}DA$	P	–
26	왼메주먹아래표적치기	왼메주먹/아래/표적/치기	$C^{+}DBA$	P	–
27	한손날아래막기	한손날/아래/막기	$C^{+}DA$	P	–
28	한손날아래막기	한손날/아래/막기	$C^{+}DA$	P	–

29	한손날아래막기	한손날/아래/막기	$C^{+}DA$	P	–
30	칼재비 – 기합	칼재비 – 기합	B	P	–
그만	통밀기준비서기	통/밀기+준비/서기	BA—A—A	허용	준비자세이므로 허용

(2) 적용부분: 차기기술 (결과: 총 24개의 표본 모두 Pass)

순서	품명		CDBA 분류	CDBA 배열법칙 적용	결과	오류수정
1	방향	앞차기	앞/차기	DA	P	–
2		옆차기	옆/차기	BA	P	–
3		뒤차기	뒤/차기	BA	P	–
4		바깥차기	바깥/차기	CA	p	–
5		안차기	안/차기	CA	p	–
6		다방향차기	다방향/차기	$D^{+}A$	p	–
7	동작	밀어차기	밀어/차기	BA	p	–
8		뻗어차기	뻗어/차기	BA	p	–
9		틀어차기	틀어/차기	BA	p	–
10		낚아차기	낚아/차기	BA	p	–
11		짓찧기	짓찧기	B	p	–
12		밟고차기	밟고/차기	BA	p	–
13		내려차기	내려/차기	BA	p	–
14		후려차기	후려/차기	BA	p	–
15		돌려차기	돌려/차기	BA	p	–
16		받아차기	받아/차기	BA	p	–
17		걸어차기	걸어/차기	BA	p	–
18	모양	모둠차기	모둠/차기	$B^{+}A$	p	–

19		반달차기	반달/차기	BA	p	-
20		가위차기	가위/차기	BA	p	-
21		일자차기	일자/차기	BA	p	-
22		두발당상차기	두발/당상/차기	$C^{+}A$	p	-
23		나래차기	나래/차기	BA	p	-
24		돌개차기	돌개/차기	BA	p	-

(3) 적용부분: 시범프로그램 내의 기본 및 응용, 특수차기

순서		품명	CDBA 분류	CDBA 배열법칙 적용	결과	오류수정
1	위력	앞차기	앞/차기	DA		
2		돌려차기	옆/차기	BA		
3		뒤차기	뒤/차기	BA		
4		뒤후려차기	뒤/후려/차기	B-BA		
응용 및 특수차기 CDBA식 범주화 분류 적용(최소단위의 차기를 모두 A로 분류함)						
5	고공	모둠발(뛰어)앞차기	모둠발/(뛰어)/앞/차기	$C^{+}A$		
6		양발(뛰어)앞차기	양발/(뛰어)/앞/차기	$C^{+}A$		
7		뛰어옆차기	뛰어/옆/차기	BA		
8		걸고 (뛰어)뒤차기	걸고—(뛰어)/뒤차기	B-A		
9		걸고 (뛰어)뒤후리기	걸고—(뛰어)뒤후리기	B-A		
10		돌개차기	돌개/차기	BA		
11	여성	뒤후려차기 3방 후 돌개차기	뒤/후려/차기/3방/후—돌개/차기	A-x-BA		
12		나래차기 2방 후 돌개차기	나래/차기/2방/후—돌개/차기	BA-x-BA		
13		여성일렬	여성/일렬	-		
14	도약	앞차기 3단계	앞/차기—3/단계	A-x		
15		돌려차기 3단계	돌려/차기—3단계	A-x		
16		뛰어차기 4단계	뛰어/차기—4단계	BA-x		
17		가위(차기)2~5방	가위/(차기)—2~5방	BA-x		

18	장 애 물	가슴딛고 돌려차기	가슴/딛고—돌려/차기	DB-A		
19		가슴딛고 돌개차기	가슴/딛고—돌개/차기	DB-A		
20		어깨딛고 뛰어앞차기	어깨/딛고—뛰어/앞/차기	DB-A		
21		등딛고 앞차기 3단계	등/딛고—앞/차기—/3단계	DB-A-x		
22		가슴딛고 뛰어앞차기	가슴/딛고—뛰어/앞/차기	DB-A		
23		가슴딛고 뛰어돌려차기	가슴/딛고—/뛰어/돌려/차기	DB-A		
24	수 직 축 회 전	(뛰어)540도 뒤후려차기 1,2,3단계	(뛰어)/540도/뒤후려차기—1,2,3단계	BA-x		
25		뒤후려차기9방 후 540도 뒤후려차기	뒤/후려/차기—9/방/후—540도/뒤/후려/차기	A-X-BA		
26		돌개차기 9방 후 540도 뒤후려차기	돌개/차기—9/방/후—540도/뒤/후려/차기	BA-x-BA		
27		(뛰어)540도 돌개차기	(뛰어)/540도/돌개/차기	BA		
28		(뛰어)720도 돌개차기	(뛰어)/720도/돌개/차기	BA		
29	수 평 축 회 전	뒤공중양발앞차기	뒤공중/양발/앞/차기	$B-C^{+}A$		
30		뒤공중한발앞차기	뒤공중/한발/앞/차기	B-A		
31		던지고 뒤공중한발앞차기	던지고—뒤공중/한발/앞/차기	B-B-CA		
32		던지고 내딛으며뒤공중한발앞차기	던지고—내딛으며—뒤공중/한발/앞/차기	B-B-B-CA		
33		가슴딛고뒤공중돌아앞차기	가슴/딛고—뒤공중/돌아/앞/차기	DB-B-A		
34		(고공)뒤공중돌아한발발차기	(고공)—뒤공중돌아/한발/앞/차기	(DB)B-CA		
35		(고공)뒤공중돌아양발앞차기	(고공)—뒤공중돌아/양발/앞/차기	$(DB)B-C^{+}A$		
36	속 도	일렬격파	일렬/격파	-		
37		방향격파	방향/격파	-		
38	정 확 성	눈가리고돌개차기	눈가리고—돌개/차기	B-BA		
39		눈가리고외발돌개차기	눈가리고—외발/돌개/차기	$B-C^{+}BA$		
40		눈가리고 (뛰어)540도뒤후려차기	눈가리고—(뛰어)/540도/뒤/후려/차기	B-BA		
41		눈가리고 한발뒤공중앞차기	눈가리고—한발/뒤공중/앞/차기	B-B-BA		
42		눈가리고 양발뒤공중앞차기	눈가리고—양발/뒤공중/앞/차기	B-B-BA		

5) 태권도 용어정립 기준안

1차에서 9차까지의 회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안을 제정하였다.

태권도 용어정립 기준안

2008. 12. 5. 제정

다음의 기준안은 2008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한 국기원 주관 사업인 태권도 용어정립위원회 1~9차 회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들을 요약한 것이다. 추후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확정할 것이다.

1. 태권도 기술의 구성 체계는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로 나뉘어진다.
2. 태권도 기술을 일정한 수준 이하로 그 움직임을 분해했을 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단계의 기술을 기본 동작이라 한다.
3. 태권도의 기술을 목적과 움직임 여부에 따라 이원분류한다. 정적인 자세 중 보조적 역할을 서기, 주 역할을 준비자세로 분류하고, 동적인 동작 중 보조적 역할을 동작, 주 역할을 기술로서 분류한다.

4. 한자말을 포함한 국어 사용을 대전제로 하되 순 우리말로 기술 용어를 표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5. 용어 정립 기준 방향을 기능・편의성 → 설명성 → 상징성 순으로 고려한다.
6. 간단하면서 짧은 용어가 되도록 축약할 수 있으며, 현재 태권도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고려한다.

7. 다음 4가지 기준안 중 선택한다. ① ‘서기1, 서기2, 상태, 수량, 사용부위, 목표, 모양, 방향, 기술종류’의 순으로 풀어서 용어를 정한다.(박승용 위원) ② ‘방법+목표+수식어+목적’의 순으로 풀어서 용어를 정한다.(김세중 위원), ③ ‘기능, 신체부위+방향+모양상태’의 순으로 풀어서 용어를 정한다.(김중헌 위원), ④ 분류(A), 동작·모양(B), 신체사용부위(C), 공격목표·방어부위(D)로 설정하고 CBDA의 순으로 풀어서 용어를 정한다.

(박정호 보조연구원)

8. 표준어(정식용어)/약식용어/현장 사용용어를 병기하고, 조어(造語)과정을 알 수 있도록 용어 변천과정과 용어 제정 이유를 같이 기술한다.

9. 순우리말 용어에 대해 그림과 국어사전의 설명을 인용하여 기술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10. 용어 옆에 그 용어 자체의 기준표를 기재한다.

ex) 앞차기

앞	차기

6) 태권도 기술 분류안

용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태권도 기술을 분류하였다. 준비자세, 공격과 방어의 동작을 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서기와 발·몸의 예비 동작들을 부목표로 설정하고, 각 목표도 정적인 자세 혹은 동적인 동작 여부에 따라 2원 분류하였다.

새로운 태권도 기술 분류안의 의의는 ‘서기’의 역할을 분명히 규명함으로써 기존 서기와 다른 공격/방어 기술들을 1열로 나열함으로 인한 범주의 오류를 해소하였고, 경기겨루기와 시범에서의 발놀림/새로운 차기 기술 등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었을 때, 해당하는 동작 용어를 삽입함으로써 언제든지 새로운 용어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주목표/동작의 각 움직임 용어 뒤에 기술 용어를 붙이면 바로 하나의 기술이 됨으로써 기술 용어의 간편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태권도 기술 분류안

2008. 12. 5. 제정

표 29. 태권도 기술 분류안

<table>
<tr><th>움직임
주부(主副)</th><th>품·자세 (정적)</th><th>동작 (동적)</th></tr>
<tr><td>부목표</td><td>서기
(굽이, 딛기, 서기)</td><td>예비 동작
<table>
<tr><th rowspan="2">부위
구분</th><th rowspan="2">온몸 움직임</th><th rowspan="2">윗몸 움직임</th><th colspan="2">다리 움직임</th></tr>
<tr><th>서기</th><th>발놀림</th></tr>
<tr><td>방향</td><td>앞(몸)돌아
뒤(몸)돌아
공중뒤돌아
공중앞돌아
공중옆돌아
공중모돌아</td><td></td><td>앞
왼
오른
모
뒤</td><td>앞(내)
왼
오른
모
물러
물러모
옆</td></tr>
<tr><td>동작</td><td>(장애물)넘어
(장애물)딛고
도움닫고
구르고
360도돌아
540도돌아
돌개</td><td>(몸)틀어
(몸)비틀어
(몸)숙여
(몸)젖혀</td><td>주춤
모아
꼬아
나란히
편히</td><td>붙여
이어
뛰어
끌어
바꿔
(발)굴러
자진발</td></tr>
<tr><td>모양</td><td></td><td></td><td>범
학다리
곁다리</td><td></td></tr>
<tr><td>방법</td><td></td><td></td><td>낮춰
높여</td><td></td></tr>
</table>
</td></tr>
</table>

주목표	기본준비 두주먹허리준비 겹손준비 보주먹준비 통밀기준비 겨루기준비	기술 (본 동작)

구분 \ 부위		윗몸 움직임		다리 움직임
		손 움직임	팔 움직임	차기
방향		왼 오른 젖힌 세운 엎은	바깥 안 대각 옆 뒤 아래 몸통 얼굴	앞 옆 뒤 바깥 안 다방향
동작			밀기 펴기 빼기 뻗어 추켜올려 눌러 돌려 당겨 헤쳐 엇걸어	밀어 뻗어 틀어 비틀어 낚아 짓찧기, 밟기 내려 후려 돌려 받아 걸고
모양			첫다리 산틀 외산틀 금강 멍에 황소 날개 바위 태산 제비품	모둠 반달 가위 일자 두발당상 나래
방법			거들어	
기술	공격	지르기 찌르기 치기		차기
	공격 및 방어	꺾기 막기 넘기기 조르기		받아내기
	방어	막기 흘리기 피하기 걷어내기		걸기 막기 걷어내기

표 30. 태권도 기술 분류안 동작들의 정의

1	(발)구르기	발을 굴러 가볍게 튕기기기	32	물러모	대각뒷방향으로 발을 당겨
2	(장애물)넘기·딛기	장애물 관련	33	밀기	팔꿈치 혹은 무릎 관절을 굽혔다 펴면서 미는
3	(OOO)돌기	공중앞, 공중뒤, 공중옆 - 수직회전, 공중모- 대각회전, 360, 540…	34	바깥	몸 중심에서 몸 가측으로
4	360도 돌기	360도 회전	35	바꾸기	제자리에서 앞뒷발을 바꿔
5	540도 돌기	540도 회전	36	반달	반달 모양의 반원을 그리며
6	가위, 일자	가위 모양으로 양발이 교차되게	37	붙이기	뒷발 끌어당겨 앞발 옆에 붙여
7	거듭	한발로 연이어	38	비틀기	동작방향과 역방향 어깨 회전
8	공중뒤돌기	뒤로 수직 회전	39	뻗기	팔꿈치 혹은 무릎 관절을 거의 편 채로 미는
9	공중모돌기	대각 방향으로 회전	40	섞어	양발로 연이어
10	공중앞돌기	앞으로 수직 회전	41	세우기	전완을 90도로 세운
11	공중옆돌기	옆으로 수직 회전	42	숙이기	상체의 굽힘
12	구르기	등을 구부려 바닥에 대고 구름	43	아래	단전 이하
13	끌기	앞발 혹은 뒷발을 바닥에 접촉한 채 끌어당겨	44	안	몸 가측에서 몸 중심쪽으로
14	낚기	무릎 관절을 굽혀 목표물을 잡아채	45	앞(내)	앞방향
15	낮추기	양무릎을 굽혀 몸을 더 낮춤	46	앞(몸)돌기	몸을 앞으로 틀어 수평회전
16	내리기	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며	47	얼굴	목 위 부분
17	누르기	팔을 몸중심 부근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48	엇걸기	양팔을 동시에 교차시켜 다른 팔목 위에 위치시키는
18	다방향	여러 방향으로	49	엎기	전완을 회내시킨
19	당기기	대상을 잡은 상태에서 팔 혹은 다리를 구부리며 잡아 당기는	50	옆	옆방향, 몸의 측면방향, 사이드 스텝
20	대각	아래에서 위 혹은 위에서 아래로 동작 시 대각 방향으로	51	오른	오른쪽, 오른쪽 방향전환
21	도움닫기	원하는 목적지점까지 걷거나 뛰어감	52	왼	왼쪽, 왼쪽 방향전환
22	돌개	돌개바람이 대기 중에서 상승하듯 몸을 돌려	53	잇기	뒷발 끌어 앞발 교차하여
23	돌리기, 회전	팔 혹은 다리분절을 옆으로 돌리는	54	자진발	참새가 통통 튀는 모양으로 발을 굴러
24	두발당상, 나래	새가 날개짓 하듯 양발을 연이어 돌려	55	잡기	손으로 움켜쥐며 대상을 잡는
25	뒤	뒷방향	56	젖히기	상체의 폄, 전완을 회외시킨

26	뒤(몸)돌기	몸을 뒤로 틀어 수평회전	57	짓 찧기, 밟기	발을 아래방향으로 바닥까지 내리며
27	뛰기	위로 혹은 앞으로 뛰어올라	58	추켜올리기	팔을 몸중심 부근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
28	모	대각방향	59	틀기	동작방향으로 순방향 어깨 회전, 돌려차기의 반대방향으로 골반을 틀어
29	모둠	두발을 모아	60	펴기	손바닥을 편, 양무릎을 펴 몸을 세운
30	몸통	목부터 단전까지	61	헤치기	양팔을 엇걸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뿌리치며
31	물러	뒷방향으로 발을 당겨	62	후리기	무릎 관절을 굽히며 뒷꿈치 또는 발바닥으로 후려치며

3. 정립기준 평가

1) 김한샘 연구위원 (국립국어원)

◎ 기존 용어 기준안의 대응

표 31. 4가지 기준안의 비교

1) 김세중	방법		목표	수식어		목적
2) 김중헌	기능		신체 부위	방향		모양/상태
3) 박승용	수량	사용 부위	목표	모양	방향	기술 종류
4) 박정호	신체 사용 부위		공격 목표·방어 부위	동작·모양		분류

◎ 각 기준안의 문제

1) 기술의 요소가 되는 항목(방법, 목표, 목적)과 언어학적 항목(수식어))의 혼재

2) 명칭과 실제의 연상이 약함

: '손날몸통막기'라는 용어에서 '기능'이 '손날'에 해당하는가? '막기'가 '모양, 상태'에 해당하는가?

3) '수량'이라는 기준과 나머지 다섯 가지 기준의 위상이 맞지 않음

4) '차기, 서기, 막기' 등을 '분류'라고 할 수 있는가? '공격 목표·방어 부위'의 경우 공격 목표와 방어 부위가 겹쳐서 나오지 않으며 방어 부위는 곧 상대방의 공격 목표이므로 '목표'로 통합 가능

◎ 기준안의 통합

위의 표와 같이 표현과 분석의 정도만 다를 뿐 용어를 구성하는 요소의 전체 틀은 크게 네 가지로 수렴되며 '동작'은 다시 '동작, 모양, 방향'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동작의 하위 항목을 상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서도 정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용어들에 일관된 순서가 나타나지 않고, 세 가지 하위 항목이 모두 용어에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만약 '동작, 모양, 방향' 사이에 엄격한 순서가 있다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용어의 기준과 실제 용어를 구성하는 언어 표현의 관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명칭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용어 생성 시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생략이 가

능하다.

사용 부위	목표	동작	기술
		동작, 모양, 방향	

- 손날　　　　　몸통　　　　　　　　　　　　막기
- 편손끝　　　　　　　　　　아래젖혀　　　찌르기
- 오른팔굽　　　　　　　　　옆　　　　　　치기

위의 기준은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1)~4)와 같은 맥락을 유지한다. 4)를 실제 용어에 대입해 본 결과 벗어나는 용어가 거의 없었으니 기존의 용어를 이 틀에 맞추어 정리하고 벗어나는 용어를 어떻게 수정하거나 예외 목록화할 것인지를 논의하면 될 것이다.

용어 정비의 기준을 정할 때 연역적으로도 귀납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가 새로 생긴 분야가 아닌 만큼 기존의 용어들을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위의 기준안 중 어느 것을 택해도 기존의 용어들을 배제하는 방향이 아니므로 기준안의 공통점을 찾아 통합 정리하는 안을 작성해 보았다.

◎ 태권도 용어의 띄어쓰기

태권도 교본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띄어쓰기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아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일관되게 표기해야 한다.
1) 어문 규범에 맞게 모든 요소를 띄어서 쓴다.
2) 띄어쓰기를 할 단위를 설정하여 가독성을 높이되 용어가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는다.
3) 모두 붙여서 쓴다.

◎ 방향성의 기준

박정호 보조연구원이 제기한 기본차기의 함의 부분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판단하기 힘들지만 태권도 전문가들이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해야 할 문제로 인식된다.

2) 김세중 연구위원 (한글학회)

전반적으로 정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CDBA"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혹시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은 " 안팔목 몸통 헤쳐 막기"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으)로} +{~(을)를} +{(어떻게) +(하다)=(어찌하다)}]"의 어순 구조도 있지만 "[{~(을)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것으로} +{~(을)를} +{(어떻게) +(하다)=(어찌하다)}]"의 어순 구조도 우리말 어순에 맞는 듯 한데...즉, 위의 "안팔목 몸통 헤쳐 막기"를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어순으로 해석해 보았을때 어떤 순서가 더 자연스러우냐인 듯합니다.
하나는 "안팔목을 (가위처럼) 헤쳐서 몸통을 막는다"는 풀이, 즉, "몸통을 막는데 어떤 방법으로 막느냐"와 하나는 "안팔목으로 몸통을 헤쳐 막는다"에서 "헤쳐"가 "안팔목"의 "모양"을 뜻하는 것이면 "안팔목 헤쳐 몸통 막기"가 되어야 하고, "막는다"를 수식하면 "안팔목 몸통 헤쳐 막기"가 되어야 맞는데 ....
예를 들면 "손날 아래 헤쳐 막기"도 "손날 헤쳐 아래 막기"가 더 자연스러운 듯함.. 즉, "헤치다"의 주인공이 누구냐인데 "손날을 헤치는 것이냐! ", "막는 것을 헤쳐서 막는다는 것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짐..
태권도 용어에 이런 구조가 더러 있는데 태권도인들이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해 고민을 해보아야 할 듯합니다. 이 구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듯합니다.

3) 임신자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우선 용어의 기준을 ‘한국어 중심의 어휘구조’를 바탕으로 용어의 배열을 정리했고, 그 용어들이 지금의 교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용어가 기능성이나 편의성과 동 떨어지는 의미 또한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중심의 어휘구조를 바탕으로 전체 용어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나머지 두 분의 내용 역시 이 기준에 적용하여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1. 앞차기의 한 예로 '앞차기'에 '발등'과 '앞축'을 분류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발등 앞차기, 앞축 앞차기

그 이유는 차는 기술의 사용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접어, 걷어차기, 옆으로 틀어, 뻗어차기'는 이미 차는 동작(앞차기)의 명칭 속에 동작의 의미가 함축되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은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앞차기란 무릎을 접어 몸 앞쪽으로 곧장 **뻗어** 차는 기술이라 해석해야하기 때문에 이미 '앞차기'라는 용어 속에 **'접어'**, **'걷어'**, **'틀어'**, **'뻗어**'라는 의미는 이미 함축되어져 있다고 봐야한다.

3. 시범 및 특수발차기에서도 용어의 어휘구조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도약 용어 중 14,15,16,17은 3단계의 의미를 뒤쪽 보는 서두에 넣어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예) 앞차기 3단계 → 3단계 앞차기

4) 박승용 연구위원 (육군사관학교)

4.1) 박승용 연구위원 정립안 중 생략 내용 첨부

1. 수량: 한
2. 사용부위: 주먹
3. 목표: 생략 없음
4. 모양: 해당 없으면 생략
5. 방향: 앞과 바깥, 그리고 해당 없으면 생략
6. 기술종류: 생략 없음

-- 공통적인 순서로 용어 표현

--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가감하여 사용

-- 훌륭한 현재용어 병행 사용

-- CDBA와 비교하면 사용부위, 목표, 모양 및 방향, 기술종류로 구분됨

4.2) CDBA용어정렬법칙에 대한 의견

- 공격목표는 얼굴, 몸통, 아래 턱 등으로
- 앞은 공격의 방향 또는 상대의 위치이지 목표가 아님
- 바깥은 D보다 B가 되어야 함
- 표적은 B로 할 수도 있고 몸통표적으로 D+로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D+가 더 좋음(표적이 목표이므로)
- C: 차기의 정의에서 사용부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생략. 그러나 사용부위가 복수인 경우에 구분이 필요하면 C를 사용
- D: 목표는 엄격히 제한하지 않거나 기본적으로 얼굴로 가정하고 얼굴이 아닌 경우만 D를 사용
- 두발당성은 1개 단어로 해석
- C ~으로는 사용부위가 되어야 함. 앞으로 뒤로는 해당이 안되고 무엇으로가 되어야 함.
- D ~을도 앞을, 뒤를, 옆을이 아니고 무엇을(목표: 얼굴, 몸통, 아래, 목, 인중, 턱, 옆구리, 무릎 등)이 되어야 함
- A는 기술분류이고 어떻게(B)는 나머지 모두가 되어야 함

참 고 자 료

- 회 의 록 -

- 박해만 관장님 조언 -

용어정립 위원회 결성 및 1차 회의

◈ 일시 : 2008년 3월 29일 토요일 , 국기원 2강의실
◈ 용어정립위원회 위원장 : 강성철 교수(용인대)

1차 회의 내용

연구 목표 설정

- 연구의 목표 설정은 최종적으로 용어집 발간을 목적으로 운영 되며, 용어집의 쓰임은 교본과는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구성
- 2008년도 용어정립위원회의 용어 사업은 우선적으로 용어의 분석을 시작으로 하여 용어의 수집이 최우선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수집에 관한 일률적인 방법이 고민 되었다. 또한 수집된 용어의 체계적 정립을 목적으로 함

연구 방향 설정

- 현재 산재되어 있는 용어 정립의 논의 건은 용어의 실용성과 논리성을 적용하여 개선되어야 할 여지를 찾고 그에 따라 정리, 정립을 통해 논리적 연구 결과를 창출 함
- 용어 정립의 개선은 용어의 원리적 특성을 찾아내어 체계적이고 공통된 기준과 논리를 통해 개선 여지를 파악, 정립함
- 원리적 특성과, 공통된 기준은 용어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짊

연구 방법

- 용어정립에 있어 구체적 연구방법은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겨루기, 시범, 기본동작 등으로 나뉘어 용어의 수집 및 분석 하고 정립함
- 각 분야별로 연구된 용어의 연구물을 바탕으로 월1회에 걸쳐 전체회의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로 가능한 월1회의 소분야별 회의를 실시함
- 회의의 결과는 차시 연구의 전재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됨
- 이메일 뉴스그룹을 통해 실시간 토의하는 방법 도입
- 용어의 수집에 있어 정식용어/약식용어/외국에서의 쓰임을 병기하고 , 수집 방법에 대한 예시 배포를 통해 각 위원 간 용어 수집 방법의 효율 도모

업무 분장

- 기본동작(품새): 강성철, 박승용, 송형석, 김중헌, 최현민(보조연구원)
- 겨루기: 장권, 전정우, (보조연구원)
- 시범, 호신술: 장권, 임일혁, 이영림(보조연구원)
- 자문: 정세구, 김세중, 김한샘

회의 중 의견 사항

- 첫째, 효율적으로 용어를 정립하기 위해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함(사업 시행 후 다시 혼란이 올 가능성 차단위해)
- 둘째, 태권도 교본에도 찾아보기(index)가 가나다순 혹은 주제별로 필요함
- 셋째, 용어들이 한자에서 한글로 바뀐 것은 좋으나 조어(造語) 과정이 드러나지 않아 말의 어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어집에서 용어 변천사와 용어 제정 이유까지 설명 수록해야함
- 넷째, 호신술을 품새, 겨루기 외 다른 분류로 볼 것인가, 태권도 자체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것인가 등의 개념 정립도 아울러 필요함
- 다섯째, 몸돌아뛰어돌려차기가 돌개차기로 불려지는 것과 나래차기처럼 그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감명할 수 있는 용어 제정 기준이 필요함
- 여섯째, 겨루기 분야에서 보조연구원 1명을 더 추천하기로 함

태권도 용어정립위원회 2차 회의

◈ 일 시 : 2008년 4월 19일 (오전 10:00)

◈ 장 소 : 국기원 2강의실

2차 주제 - 세부 업무 계획 발표와 동작 기술 시 기준 확립

2차 회의 내용

- 태권도 동작 기술 시 태권도식 전문용어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가, 의학용어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 세부적인 용어 정립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그 기본 틀을 잡는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
- 향후 교육목표분류표를 참고하여 태권도에 맞는 유목분류기준표를 만들어 공격, 방어, 공격방어, 기본동작, 정의 동작으로 카테고리화해서 그에 맞는 살들을 붙여 나가는 식으로 용어정립을 하도록 함
- 실용적이지 않은 동작들은 삭제해야 함
- 용어정립용 엑셀 포맷은 우리말로 된 용어로 기준안을 세운 뒤 작업
- 용어 정립되면 의사고시와 마찬가지로 사범들의 시험과 연수를 통해 교육화해서 보급에 힘써야 함
- 다음 회의에서는 유목분류기준안을 토의하기로 함
- 용어 수집 및 정립에 앞서 기준을 정해야 함

태권도 용어정립위원회 3차 회의

◈ 일시: 2008년 5월 17일 (오전 10:00)
◈ 장소: 국기원 2강의실

3차 주제 - 태권도 기술 체계 분류

3차 회의 내용

- 국기원 태권도 교본의 목차의 상,하위 개념 분류 제시
- 태권도 분류 체계에서 기본동작과 품새 혹은 겨루기 간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간의 혼동이 있어 논쟁 지속
- 기본동작 정립체계의 중요성 역설, 기본동작 정립체계의 중요성은 현재적 의미와 함께 미래 발전방향을 위해서도 정확한 체계 확립중요
- 고려 품새를 예시로 하여 명칭제정 기준안 제시(가안 제시)
- 표준용어의 제정은 표준화된 용어의 활용을 말하기 때문에 약식어의 무분별 사용은 표준용어 제정과 표준용어로서의 의미를 상실케 하기에 표준용어의 일반적 사용이 중요함
- 기술체계의 분류를 확실히 해야 함
- 용어 정립 원칙의 기준안을 분야별(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시범)로 명확하게 제정해야함

태권도 용어정립위원회 4차 회의

◈ 일시: 2008년 6월 21일 (오전 10:00)
◈ 장소: 국기원 2강의실

4차 주제 - 영역별 기준안 제시

4차 회의 내용

- 용어정립의 기준 방향을 1. 상징성, 2. 기능성, 3. 편의성, 4. 설명성 순으로 고려, 대학지도자와 일선지도자에게 설문조사, 언어는 계속 변하므로 그에 맞춰 수정할 것을 제안
- 겨루기를 경기겨루기와 실전겨루기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세부 기술체계를 다시 정립할 것을 제안
- 태권도의 기본을 바탕으로 각 영역별 기본동작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
- 회의의 주제 및 논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위원들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안을 내놓고 토론할 것을 제안
- 새로운 기술이나 용어를 만들면 자문을 구하던가 상의를 할 수 있는 상설기관으로써 태권도 용어심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
- 부설기관 혹은 체육관을 만들어서 국기원이 제정한 각종 안건들을 미리 시행해 볼 필요가 있음
- 각 용어 사용 사례들과 설문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함. 다음 회의 때는 1. 겨루기/시범/호신술의 용어 정립 기준안을 듣고, 2. 동일 개념인 태권도의 기본을 가지고 각 영역의 기본동작 구성체계를 발표하고 논의하도록 함
- 위원의 계속되는 불참 시 행정조치를 제고에 대한 제안
- 현행 ‘기본’ 혹은 ‘기본동작’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본’으로 통일하고, ‘기본동작’이라고 표현하던 것을 각 영역별 ‘기초동작’이라고 바꿔 표현하여 혼동을 줄여야 함

태권도 용어정립위원회 5차 회의

◈ 일시 : 2008. 7. 18 (오전 10:00)
◈ 장소 : 국기원 1강의실

5차 주제 – 겨루기/시범/호신술의 용어 정립 기준안 및 각 영역별 기본동작

5차 회의 내용

※ 용어

- 스텝, 발놀림, 짓기 중 '발놀림'으로 사용
- '반격'이란 용어 대신 '방어 후 공격'이 적당
- 엇서기자세, 맞서기자세 대신 '엇자세', '맞자세'가 적당
- 역회전 대신 '앞공중돌기, 공중돌기'가 적당
- '밟다'는 밟고 주저 앉는 뜻, '딛다'는 다음 동작을 한다는 예상이므로 모든 발로 -딛고 밟는 용어를 '딛다'로 통일하는 것이 적당

※ 기준안

- 한자를 포함한 국어 사용을 대전제로 하되 순 우리말을 계승하고, 버리지 말고 설명해 이해시키도록 노력
- 간단하면서 짧은 용어가 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 해설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따로 만들어야 함
- 10자 이상 되는 용어는 좀 혼동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고, 어순, 띄어쓰기는 가장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채택
-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용어를 썼으면 함
- 정립용어 교육은 연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육내용의 실제적 적용이 중요
- 분류안의 의견대로 제외되는 동작 용어를 숫자로 표현 하는 것은 무리

태권도 용어정립위원회 6차 회의

◈ 일시 : 2008년 8월 27일 (오후 2:00)
◈ 장소 :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세미나실

6차 주제 - 기준안 적용 시 도출되는 문제점과 문제시 되는 용어에 관한 논의

6차 회의 내용

- 반격이 방어와 공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
- 엇자세, 맞자세의 일관성 등에 관한 논의와 자세와 서기의 중복 사용에 대해 논의
- 겨루기 발차기 용어 정립의 시급함 다시 문제제기
- 등주먹, 편손끝, 솟음주먹 등의 문제를 보조연구원이 제시했으나 기각
- 교본에 나와 있는 기본 발차기 용어에 대한 보조연구원의 발표로 발차기 용어 정립의 중요성을 재확인
- 국립국어원의 요청으로 품세와 품새에 대한 논의, '품새'로 결정
- 김세중, 박승용 위원이 제시한 용어 정립 어순 기준을 통한 용어제시, 용어 정립시도
- 특수한 용어(540도발차기)등은 각 파트에서 기준을 마련

태권도 용어정립위원회 7차 회의

◈ 일시: 2008년 9월 20일 (오전 10:00)
◈ 장소: 국기원 2강의실

7차 주제 - 태권도 발차기 분류 및 용어 정립

7차 회의 내용

- 태권도 기본 발차기의 분류 논의, 기존 4개 분류(교본), 학자들 6~8개 분류
- 기본발차기를 제외한 나머지 발차기는 응용으로 해석하고자 하고,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발차기의 삭제는 불가
- 손의 사용을 손지르기라고 하지 않기에 발차기를 차기로 표기 요망, 뒷차기는 어법상 뒤차기로 표현
- 기본동작, 겨루기, 시범의 발차기를 80% 정도 포함할 수 있는 차기용어 정립안을 제시했고, 추후 수정을 통해 재논의 필요
- 용어 정립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
- 각 회의에서 결정짓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 현재까지 내용 정리하여 중간보고에 대비

태권도 용어정립&신기술 개발 8차 통합 회의

◈ 일시 : 2008년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 장소 : 국기원 2강의실

8차 주제 – 태권도 기술 분류안 토의, 서기 용어 정립, 신기술 명명

8차 회의 내용

- 태권도 기본 발차기로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내려차기, 후려차기로 결정함
- 서기에 대한 분류를 기존 넓혀서기, 모아서기, 특수품서기에서 나란히서기, 앞서기, 주춤서기, 앞굽이, 뒷굽이, 범서기, 모아서기, 곁다리서기, 꼬아서기, 학다리서기의 10개 서기로 분류하기로 하며, 겨루기용 서기의 필요성 언급
- 태권도 기술의 분류안을 목표와 움직임 여부에 따라 이원분류하여 제시함. 정적인 자세 중 보조적 역할을 서기, 주 역할을 준비자세로 분류하고, 동적인 동작 중 보조적 역할을 동작, 주 역할을 기술로서 분류함 – 새 분류안의 용어 기술법에 따라 기존 기술들을 적용해 보고 토의하기로 함
- 용어가 제정되지 않은 기술들과 신기술에 대한 시연을 통해 제시한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 용어정립위원들에게 이해 시켰으며, 차후 보조연구원들이 용어를 만들고 위원들이 토의하기로 함
- 겨루기 서기 자세 중 엇서기, 맞서기에서 마주 보는 자세가 엇서기냐 맞서기냐에 대한 토론을 벌였고, 서로 같은 발 및 손자세를 맞서기, 서로 다른 발 및 손자세를 엇서기로 하기로 의견 모음
- 신기술 개발 시 제한을 두지 말고 오행, 기공 등 성인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가져와야 한다고 역설. 또한 호신술을 현실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교본에 넘기기가 있다면 유도의 낙법과 차별되는 태권도 낙법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언급
- 새롭게 제시된 태권도 기술 분류안에 맞춰 기존 용어들을 재분류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지금까지 해 온 작업들을 잘 정리하여 11월 중간보고회에 대비하기로 함

태권도 용어정립&신기술 개발 9차 통합 회의

◈ 일시 : 2008년 11월 24일 금요일

◈ 장소 : 국기원 2강의실

9차 주제 - 중간 보고 발표회 따른 용어 정리

9차 회의 내용

- 서기의 엇서기와 맞서기를 용어적 의미로 부여하기 전 겨룸세로 겨루기의 서기 통합 적당
- 서기의 문제는 겨루기의 협소성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무리 됨
- 각 분야의 연구가 통일성 있게 체계화필요, 현시점의 상황은 분야별 연구의 통일성 부족으로 합의 된 의견 도출 한계
- 용어정립에 있어 기준의 정립이 모든 용어정립의 기본이 됨
- 태권도의 기술체계에 있어 구체적인 각 분야의 정립이 시급하며, 체계의 정립에 있어 현재의 분류 중 우선적 기술 분류에 포함 되어야 할 기술 분야를 확실히 판별하여 정립해야 함
- 기술체계의 재정립이 각 분야의 독립적 정립으로 전환 되어서는 안 됨
- 겨루기의 준비서기, 겨눔새, 겨루기준비자세, 겨눔자세 등의 체적 서기 정립은 차후 정립 필요

※ 다음 내용은 태권도 용어정립위원회 5차 회의(2008. 7. 18., 국기원 1강의실)에 참석해 주셨던 박해만 관장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만을 추리고 수정한 자료입니다. 박해만 관장님께서는 1969년과 1972년 태권도 용어정립과 개정 사업 시, 직접 용어를 만드시고 수정한 장본인으로서, 태권도 용어정립의 역사를 기록하는데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듯해 이 지면을 빌어 수록합니다.

"순우리말을 써야 하는가?" 물음에 대하여

- 박해만 - 당시 강원식 씨와 용어 관계로 문제가 있었다. 칫다리지르기를 ㄷ긋자 지르기로 바꾸면 어떠냐? 라는 말을 했다. 품세를 만들었는데 공격과 방어 기술을 이용해서 한 것이 보미에 넣어 형태를 나타낸 것이기에 품세라고 라고 했습니다. 자세도 세자를 다르게 쓸 수 있다. 한글학회에서 짜임새, 끼임새 등은 '새'이니 '세'자를 '새'자로 쓰는 것이 어떻냐? 그랬는데, 참새 새자도 아니고 야유가 있었으나 한글학회 문의를 한 것이라서 쓴 거라고 설명함. **설명에 이해만 시키면 되는 거지 좋은 우리말을 왜 빼버리는지 모르겠다.** 미국에서도 칫다리지르기 다 사용하고 있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면 좋은데 그것을 왜 바꾸려하는가. 멍에치기, 칫다리 지르기, 돌쩌귀(이종우 사범이 명칭 붙임) 등 **좋은 것은 이해시키고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교육분과 위원장을 8년동안 했는데 50대 넘는 사람은 내손을 다 걸쳐 나갔다,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배웠으면 나가서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야 하는데 안가르쳐서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1972년도부터 대한 체육회 6층 강당에서 지도자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때 한 1,2차 나눠서 600명 모아서 73년도 11월30일에 국기원 준공식을 했다. 600명 이상 교육 받은 후에 6.7단 이상인데 구령을 붙여 주춤서기를 외쳐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과거 기마서기입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자세를 잡았다. 여러분들이 나가면 새로운 것을 꼭 가르치십시오, 하고 강의를 한다. 하지만 사범들이 나가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육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순 우리말이든 한국말로 하던 용어정립을 하는데 외국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태권도는 될수 있음 우리말로 가르칠수 있도록 한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기준 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하여

- 박해만 - 몸돌려차기 몸도 180도 돌아가는데 발도 180돌아가서 머리가 360돌아가면 몸도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온몸 돌려차기라고 했는데 요즘은 뒤차기, 뒤후려차기와 같이 과거에 없앤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 때문

에 생긴 것이 앞 돌려차기이다. 체육의 상대성이라나. **간단하면서 짧게 돼야 용어가 된다. 해설할 때 사용하는 용어는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스텝을 발놀림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발놀림을 1,2,3,4로 만들어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나래차기에 대하여

- 박해만 - 나래차기 이름은 보기는 좋은데 그게 오른발 왼발이 들어가면 이어차기라고 한다. 이것이 떠서 하는 것이니까 뛰어이어차기, 이단 앞차기가 있는데 이것을 두발당상앞차기, 한다리는 앞차기를 차는데 다른 한다리는 돌려차기를 찬다던가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 이어 돌려차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타

- 1955년에서 1956년 최홍희가 태권도계에 나타났는데 최홍희는 태권도를 한 사람이 아니고 지휘만 했다. 운동은 안했다. 남태희 등을 이용했다. 태권도 동작을 갖다 꾸며 놓은 것으로써 공격적이어서 군인에 알맞다.
- 1961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64년 경호실 태권도 사범을 역임했고, 부이사관 2급으로 나왔다. 또한 교육분과위원장과 시범단 단장을 했다.
- 1966년 이종우 원로가 각 원로들에게 품새를 몇 개씩 만들어와라라고 지시해 몇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 팔괘 3장과 5장(추후 9장)이 채택되었다. 팔괘는 동작이 크고 가라데 비슷해 당시 시대에 잘 맞았다.
- 1971년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넣자는 얘기가 나와 태극 품새를 제정했다. 그 때 계획으로는 고3을 졸업하면 1단을 승단하게 해, 군 입대 시 백병전에 써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 1988년 팔괘를 없애기로 결의했다.
- 최홍희의 '형'은 위인의 이름이다. 그 중 우남형은 이승만 대통령의 호를 땄는데, 최홍희가 북한에 가서는 이 '형'을 없애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다.
- 용어는 김운용 전 총재의 사인으로 시작됐다.
- **개인적으로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용어를 썼으면 한다.**
-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때, 일본말을 우리말화 해서 쓰기만 했었는데, 당시 문교부 당국자가 대상에 맞는 언어 순화를 요청해와 지금에 이르렀다. 손칼을 손날로 바꾼 예가 그렇다.

참고문헌

곽택용(2007). 태권도 경기기술 용어 변천과 사용실태. 대한무도학회지 제9권 제2호 pp.113~128

구본칠, 조영민(2003). 태권도 기본자세의 이론적 체계에 관한 용어고찰.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과 실천 13(2). 165-177.

국기원(1987). 태권도교본. 서울: 오성출판사

국기원(2006). 태권도교본. 서울: 오성출판사

국립국어원(2008). 표준국어대사전. http://124.137.201.223/search/List_dic.jsp

김명수(1992). 태권도 스포츠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방한(2001). 언어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김세혁(1993). 태권도 경기의 공격 및 발놀림 유형에 따른 시도횟수와 성공도 분석.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영수(1992). 태권도 스포츠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종록(1995). 스포츠 관련 어휘의 형태◦의미론적 분석. 경북대학교 국어교육연구.

류정무, 정행도, 최창국(1997). 운동행동의 심리학적 연구. 서울: 명지출판사.

리의재(2006). 전문용어 표준화 문제와 제대로 된 교육. (칼럼)

박철희(1958). 파사권법-공수도 교범.

양진방(1986). 해방 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 봉(1999). 태권도의 기술 용어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지. 7(1). 228-230.

이원국(1969).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이은주(1996). 한국무용 용어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예체능편 24. 인천전문대 논문집.

이종우(1975). 태권도 교본(품새편)

임신자(1993). 태권도 경기기술 구조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재민, 김성도(2002). 태권도 차기기술 용어의 언어학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1(4). 63-79.

정경화(2002). 택견원론. 서울: 보경문화사

정경화. 조성균. 이재돈(2001). 택견용어에 나타난 민족정서. 한국체육학회 2001 서울국제 스포츠과학회의. 122.

최영렬. 전정우(2006). 태권도와 택견 기술의 비교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5(1). 201.

최홍희(1966). 태권도 교본. 서울: 성화문화사.

황기(1958). 당수도 교본. 서울: 오랑문화사.

허용, 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태권도 용어정립 연구

2008년 12월 발 행

발 행 처 : 국 기 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홈 페 이 지 : http://research.kukkiwon.or.kr
전 화 : 02) 553-5651
F A X : 02) 3469-0189
E-mail : research@kukkiwon.or.kr

이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국기원에 있으며, 국기원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